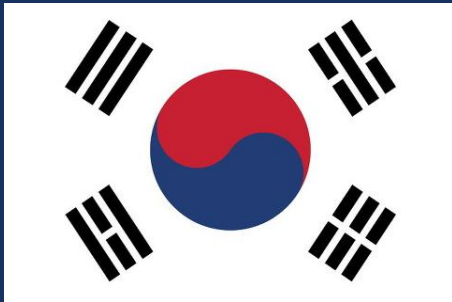


한국 교과서 속의

아르헨티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연구원, 박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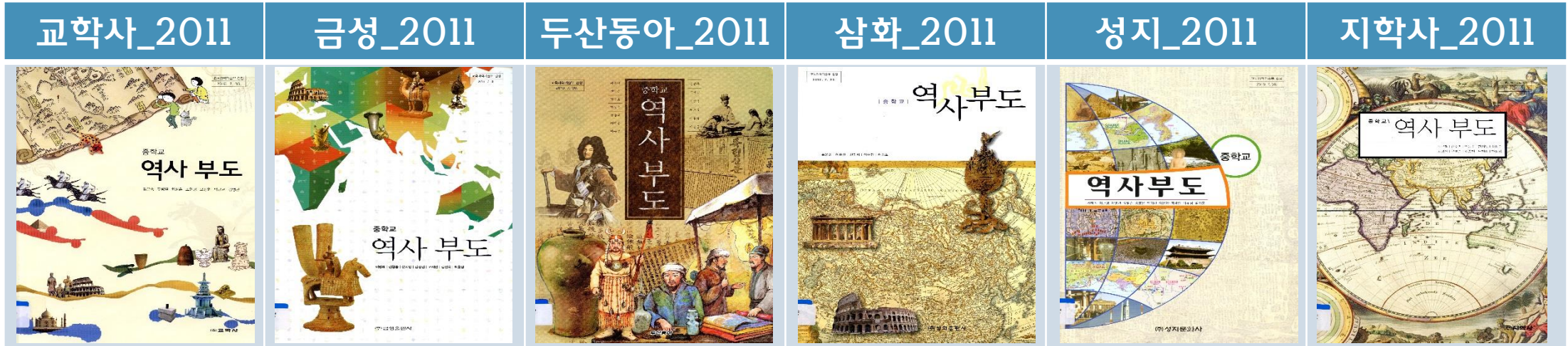
목 차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2. 과목별 사회과 교과서 내 아르헨티나
3. 요약 및 결론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 중·고등학교 역사부도 (12권)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 고등학교 세계사·세계지리·사회 (12권)

교학사_2013	금성_2013	더텍스트_2013	천재_2013	교학사_2013	천재_2013
미래엔_2011	법문사_2011	비상교육_2011	천재_2011	천재_2011	한솔교육_2011

2. 과목별 사회과 교과서 내 아르헨티나

1) 중·고등학교 역사부도

- 스페인 식민지, 라틴아메리카 독립, 경제 연합

2) 고등학교 세계사

- 라틴아메리카 독립, 인종, 경제 연합

3) 고등학교 세계지리

- 문화, 기후, 인종, 인구, 경제

4) 고등학교 사회

- 기후, 경제 연합, 문화, 산업



중·고등학교 역사부도

■ 스페인의 식민 지배

- ✓ 17~18세기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스페인의 식민지로 나타남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 아르헨티나는 1816년 독립함
- ✓ 산 마르틴

■ 세계의 새로운 경제 체제

- ✓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 ✓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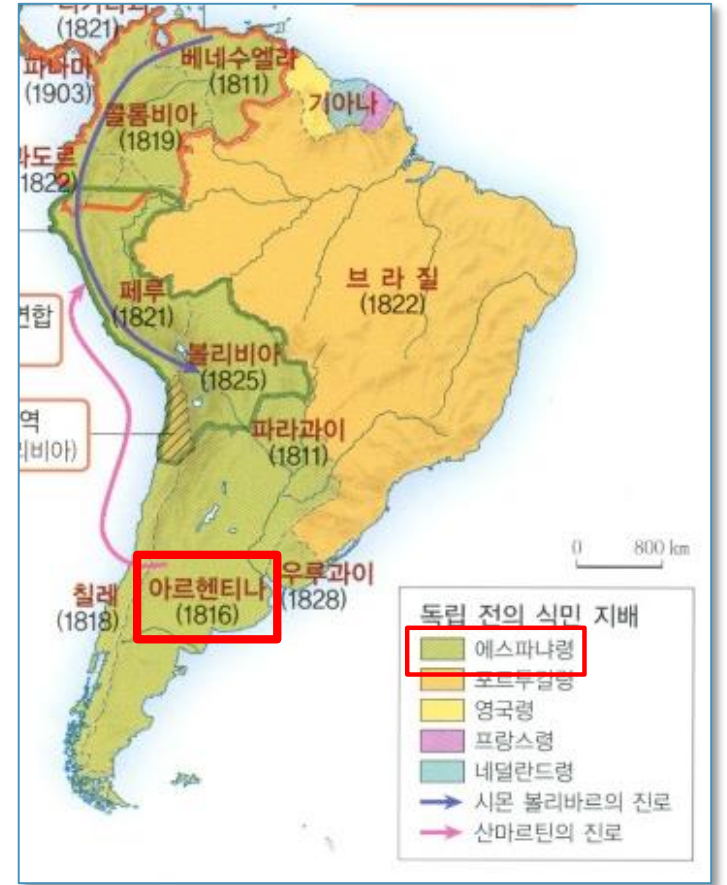
- ✓ 크리스트교



■ 스페인의 식민 지배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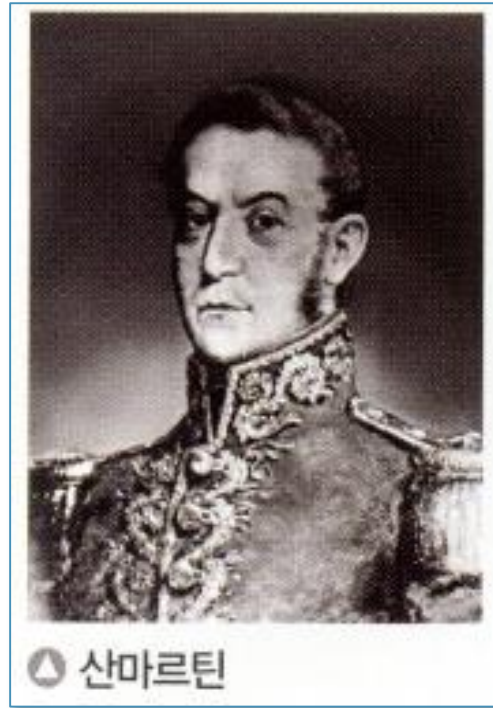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을 했다.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아르헨티나는 산 마르틴의 영향으로 독립한 국가이다.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산마르틴

- 아르헨티나의 군인·혁명가(1778~1850)
- 에스파냐 식민지였던 칠레, 페루 등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 지도

! **호세 데 산 마르틴(José de San Martín)**

■ 세계의 새로운 경제 체제



!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남미 공동 시장(MERCOSUR)의
회원국이다.

■ 종교



고등학교 세계사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 아르헨티나는 1816년 독립함
- ✓ 산 마르틴

■ 스페인의 식민 지배

- ✓ 신항로 개척 당시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은 스페인 식민지

■ 세계의 새로운 경제 체제

- ✓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볼리바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독립시키다. |

나폴레옹이 에스파냐를 침략하여 왕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형을 왕으로 삼자,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크리올료들은 이제 에스파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였는데, 볼리바르가 중심인물이었다.

볼리바르는 의용군을 조직하고, 사령관이 되어 라틴 아메리카 독립 전쟁을 지휘하였다. 초반에는 계속 패배하여 망명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에스파냐에 대한 항쟁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볼리바르는 카라가스(베네수엘라), 보고타(콜롬비아), 키토(에콰도르)를 독립시켜 '해방자' 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어 베네수엘라 · 콜롬비아 · 에콰도르로 이루어지는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립하여 대통령이 되었다(1819). 그는 계속해서 페루와 볼리비아의 독립에도 힘을 쏟았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남부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산마르틴이 독립 전쟁을 주도하며 에스파냐 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여 라플라타(아르헨티나), 산티아고(칠레) 등 여러 지역이 독립하게 되었다.



▲ 산마르틴(1778~1850)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 인디오나 흑인 노예의 반란이 계속되었다.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새로운 중간층으로 성장하였으나, 과중한 세금 부담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정치적 차별을 받았던 크리올료도 본토의 식민 지배 방식에 저항하였다.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점령한 것을 계기로 크리올료가 주도하는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아이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독립을 쟁취하였고, 브라질은 포르투갈 왕실의 내분을 계기로 독립을 이루었다. 콜롬비아를 비롯한 북부 지방에서는 볼리바르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부 지방에서는 산마르틴이 활약하였다. 멕시코는 이달고 신부와 모렐로스의 봉기 이후 독립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였다. 지배층인 크리올료와 다른 계층 간의 빈부 격차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었고, 군사력을 가진 지방 세력도 수시로 반란을 일으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는 영국에 이어 미국의 정치 간섭과 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중앙 아메리카 연방

▲ 라틴 아메리카 볼리바르는 라틴 아메리카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이름으로 불린다.

! 호세 산 마르틴(José San Martín)

■ 스페인의 식민 지배



■ 세계의 새로운 경제체제



고등학교 세계사

■ 인종

- ✓ 아르헨티나는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며, 소수의 메스티소들로 구성

■ 커피 소비량

- ✓ 하루 1~2잔 소비국가

■ 제 1차 세계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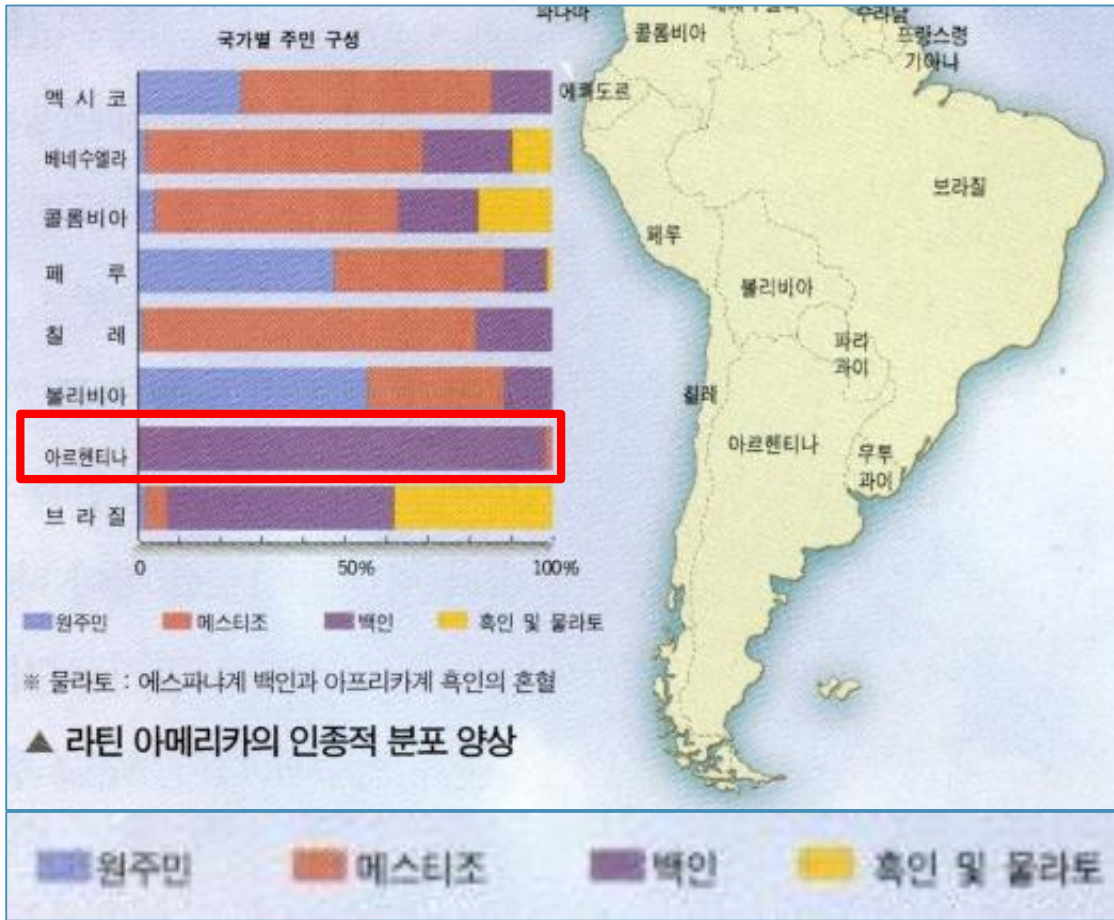
- ✓ 그 당시 중립국

■ 세계의 배고픔 정도

- ✓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구비율이 5% 미만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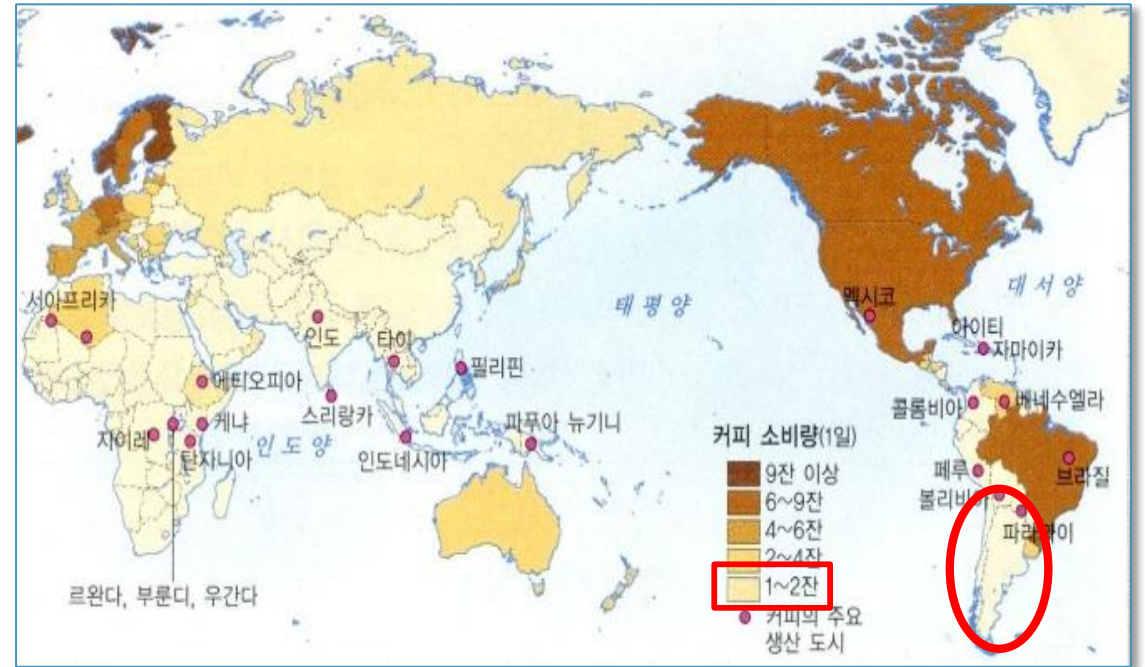


■ 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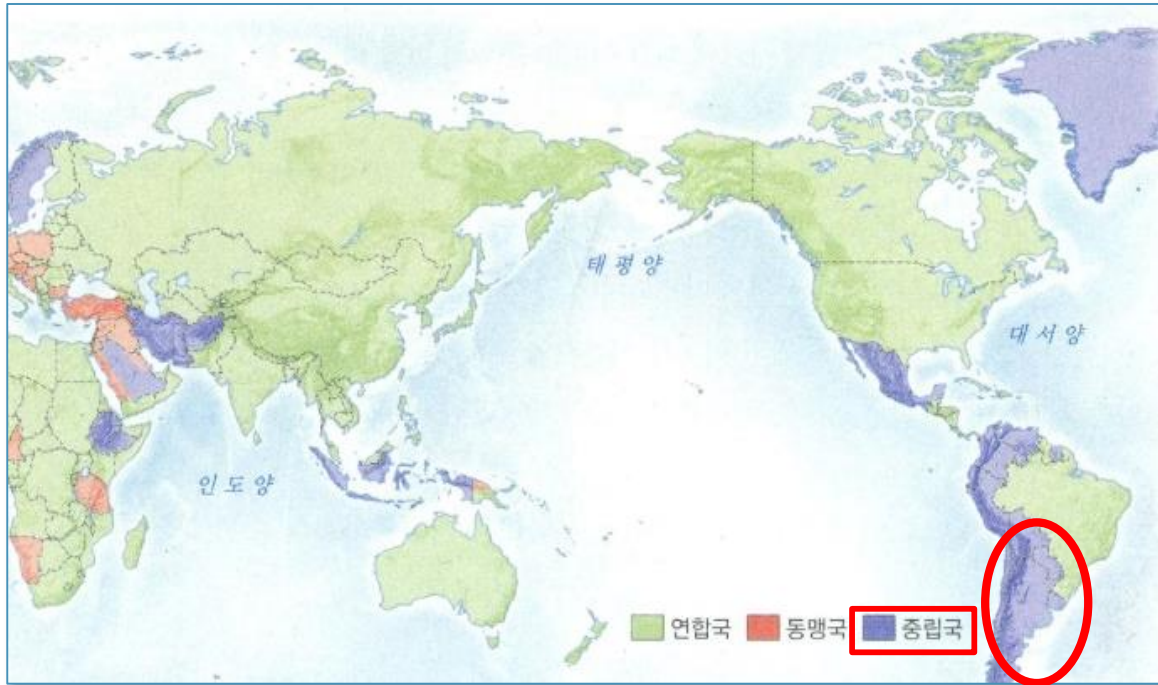


! 대부분이 백인이며,
약간의 메스티소들로 구성된다.

■ 커피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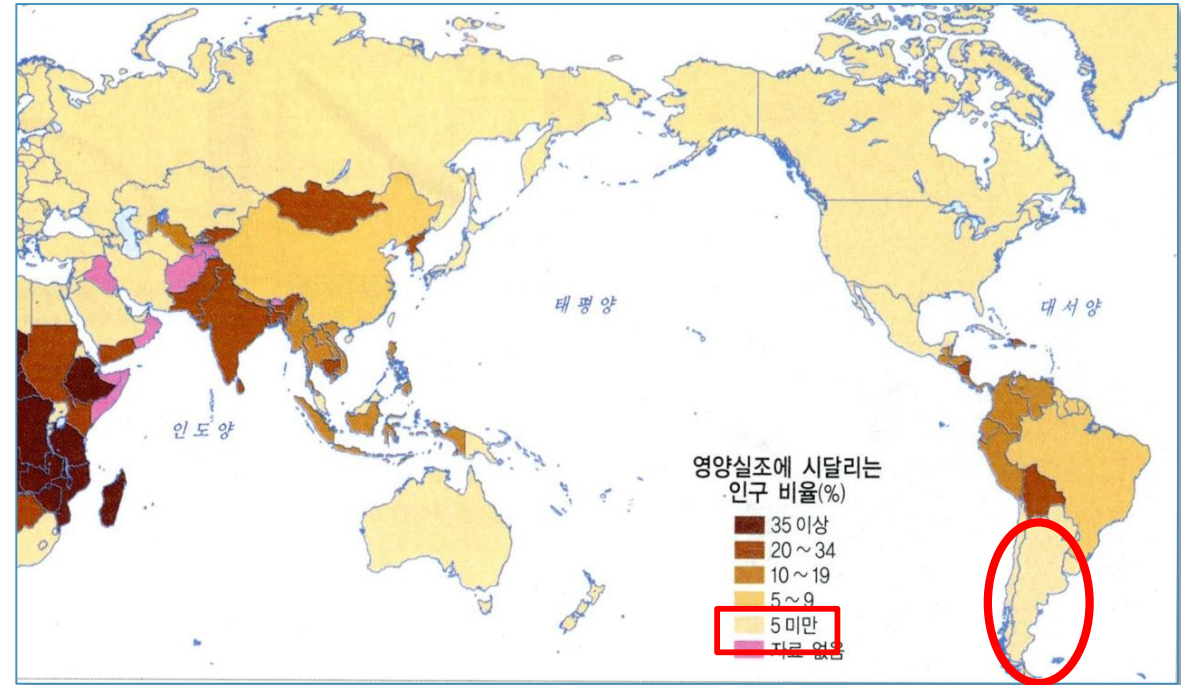


■ 제1차 세계대전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아르헨티나는 중립국이였다.

■ 세계의 배고픔 정도



?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구 비율
이 5%미만인 국가로 나타난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 세계의 지역 구분

- ✓ 언어: 스페인어, 로망스어족
- ✓ 종교: 가톨릭교

■ 토지,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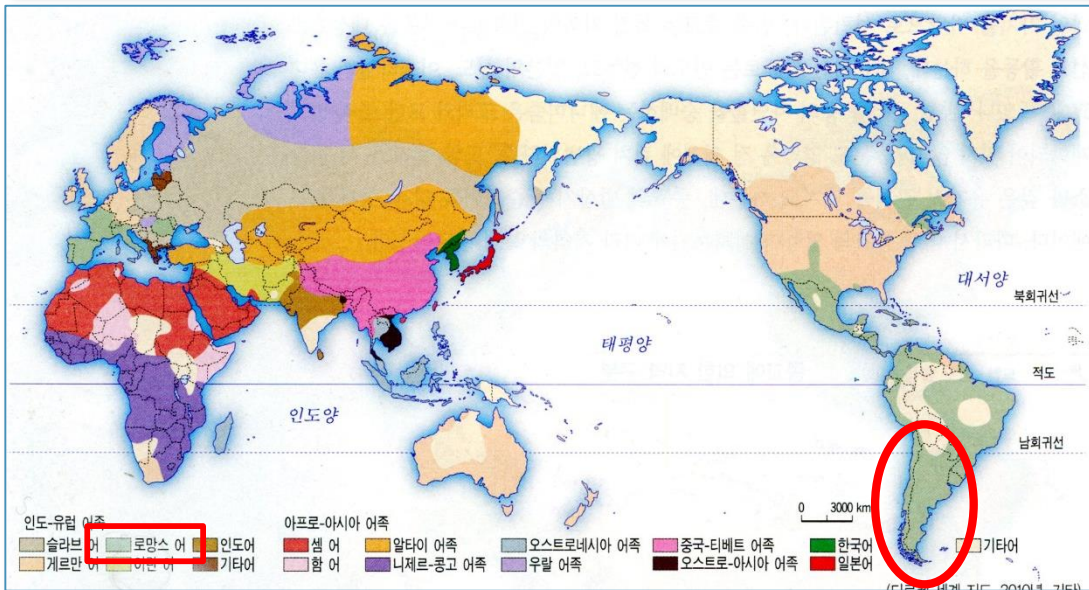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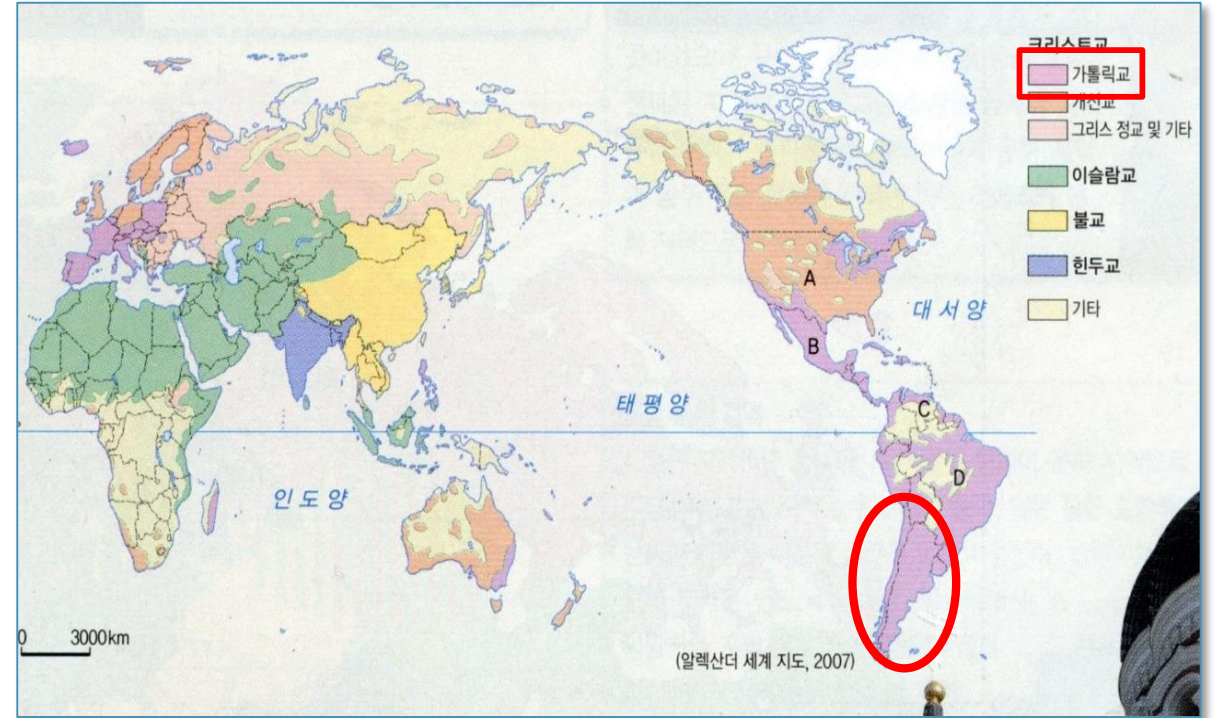
- ✓ 사막, 방목지, 경작지, 산림지가 혼합
- ✓ 기업적 방목, 기업적 곡물 농업, 혼합 농업이 분포
- ✓ 10억 달러 이상 곡물의 순 수출국
- ✓ 밀의 수확시기 10월말~3월, 127달러/1톤
- ✓ 옥수수 생산량 전체(79,179만 톤)의 2.7%, 수출량 전체(10,968만 톤)의 13.7%

■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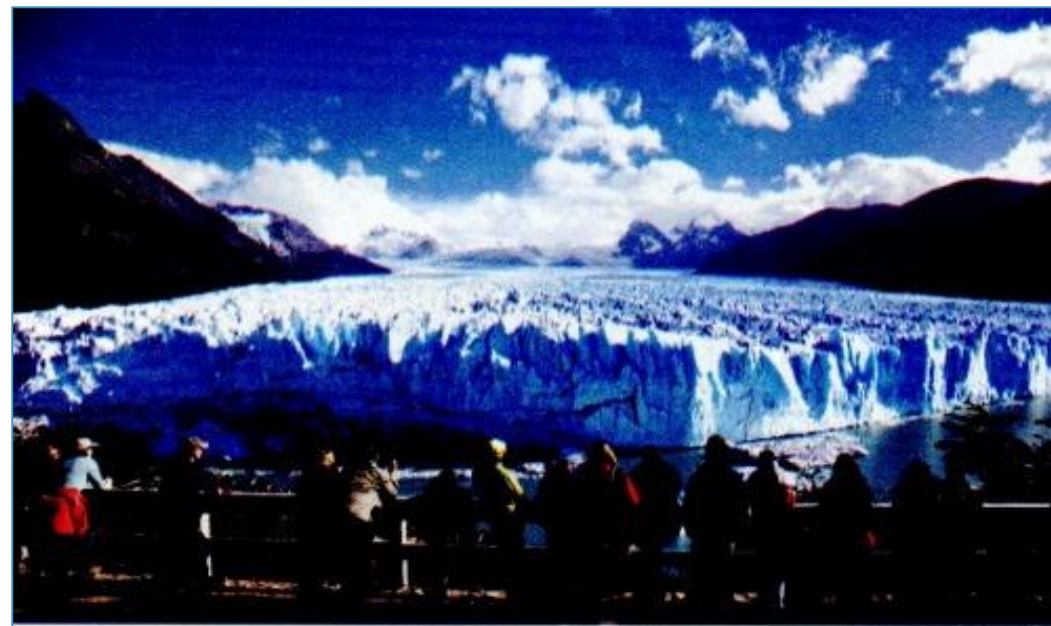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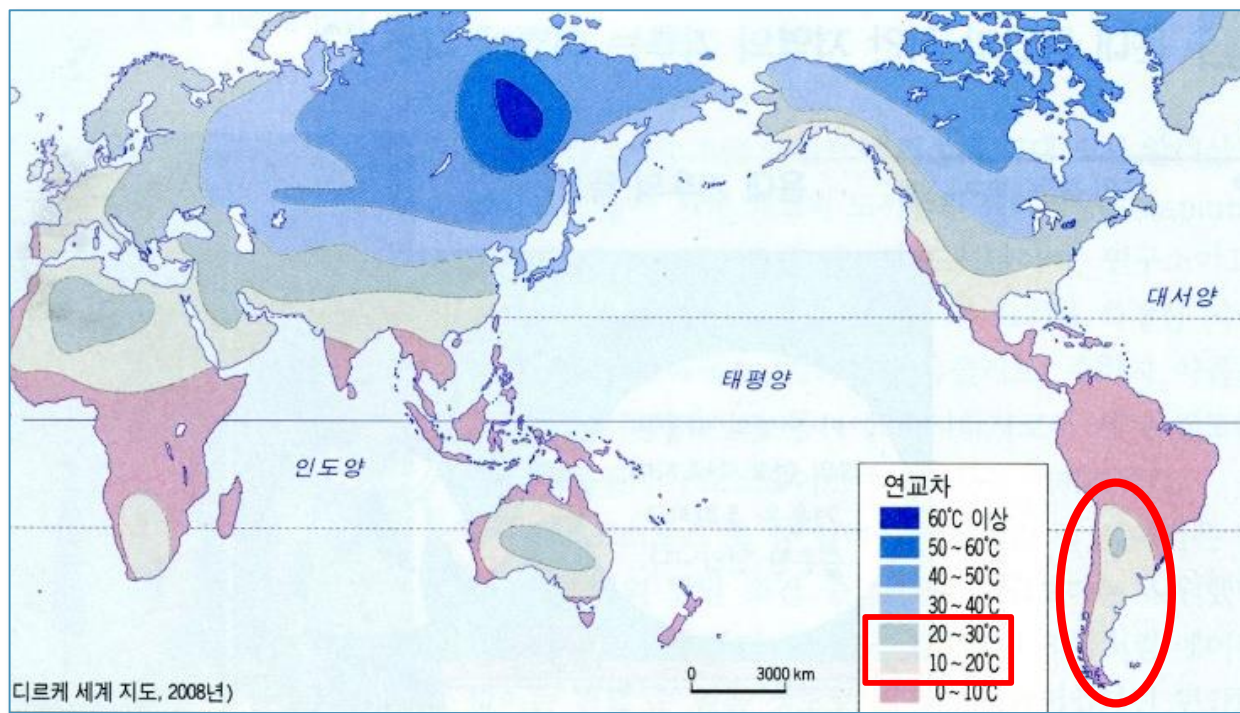
- ✓ 온대기후: 연교차 10~30℃
- ✓ 냉대 및 한대기후: 파타고니아의 빙하



■ 세계의 지역 구분(언어, 종교)



■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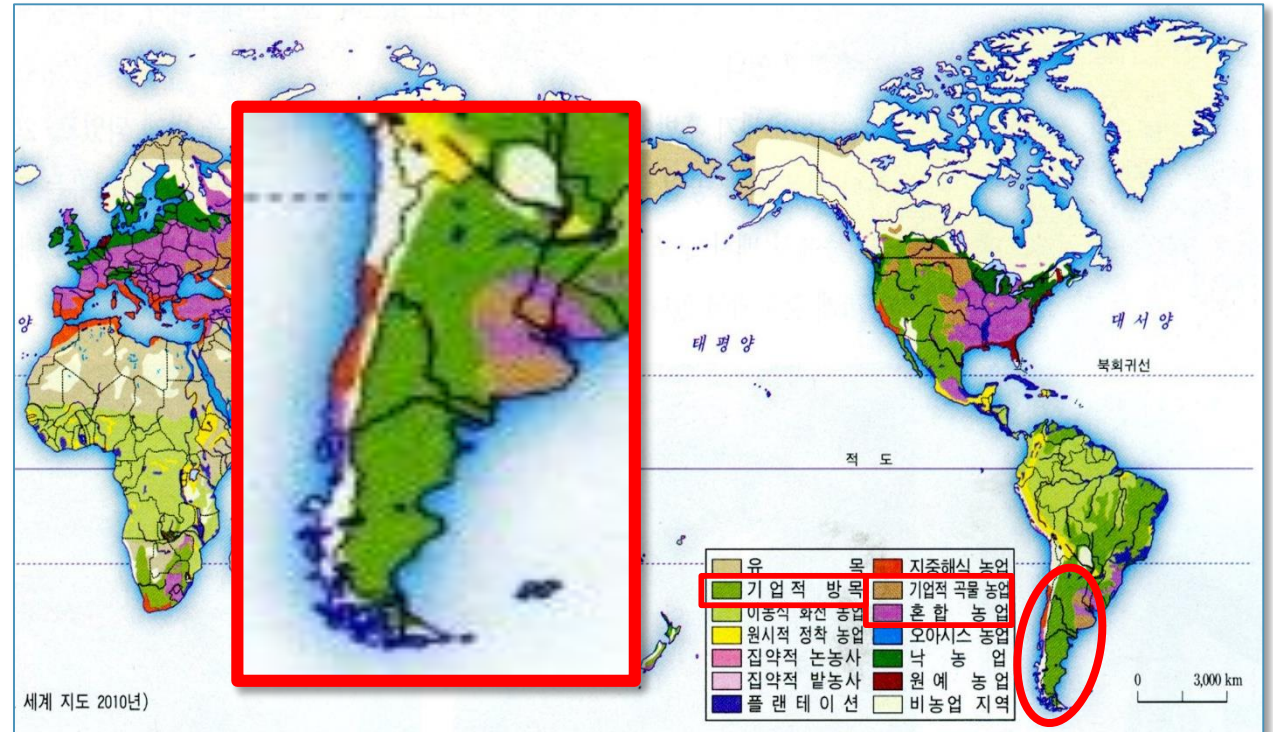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페리토 모레노 빙하 관광

! 아르헨티나의 연교차는 10~30°C이며, 온대기후와 한대기후가 혼합되어 있다.

토지,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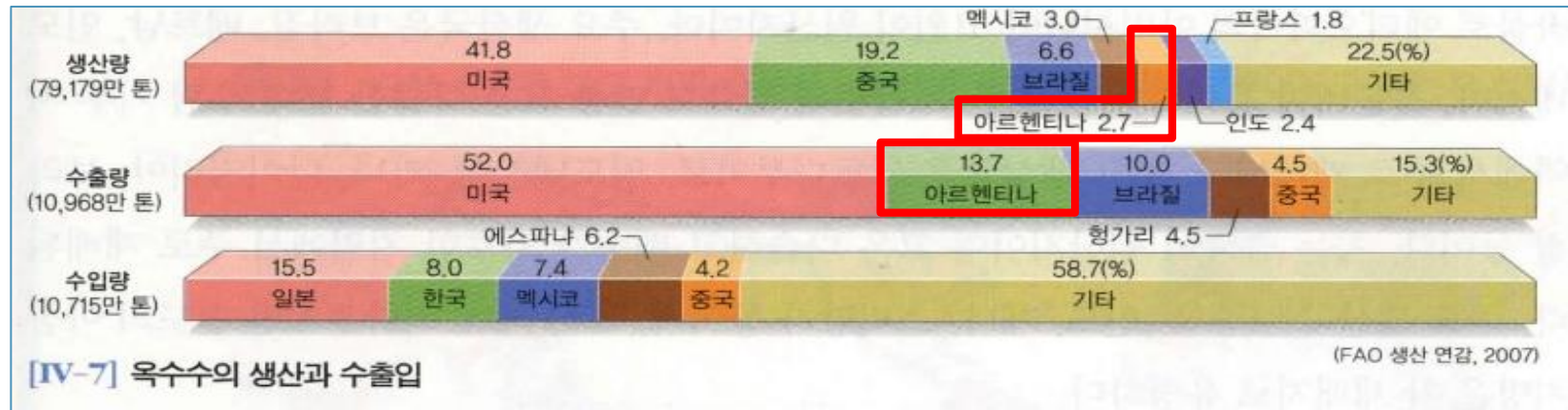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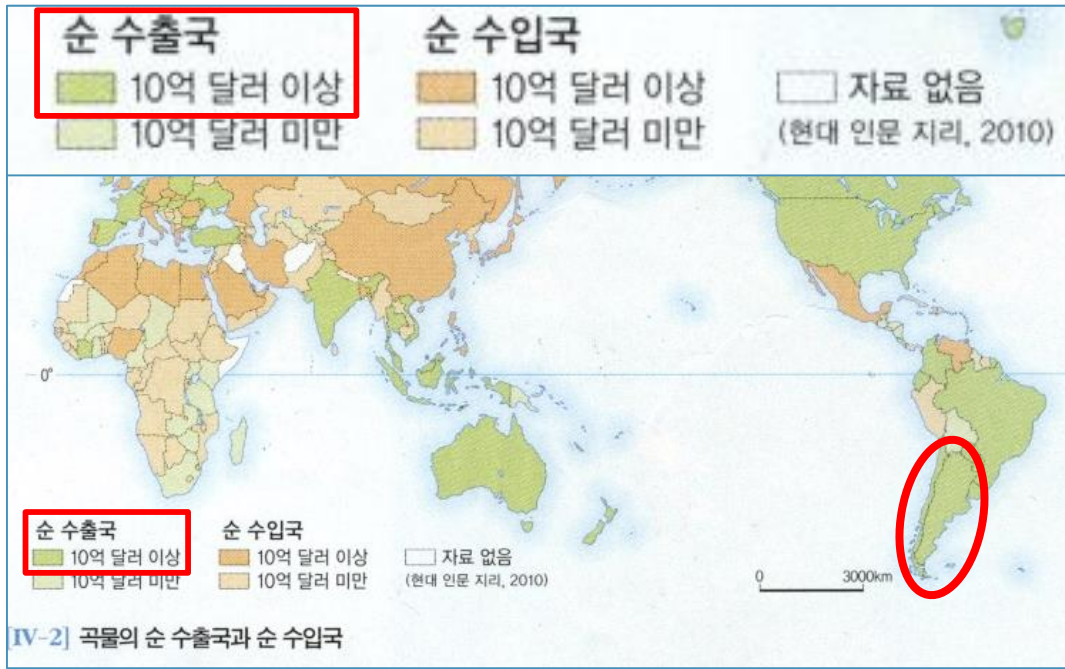


식생과 토지 용도	
경작지	남회
방목지	
산림지	
사막	
툰드라, 빙설지, 불모지	



유목	지중해식 농업
기업적 방목	기업적 곡물 농업
이동식 화전 농업	혼합 농업
원시적 정착 농업	오아시스 농업
집약적 논농사	낙농 농업
집약적 밭농사	원예 농업
플랜테이션	비농업 지역

■ 토지, 농업



고등학교 세계지리

■ **공업지역**

- ✓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공업도시, 그 지역 주변은 공업지역
- ✓ 비스타(VISTA)의 등장

■ **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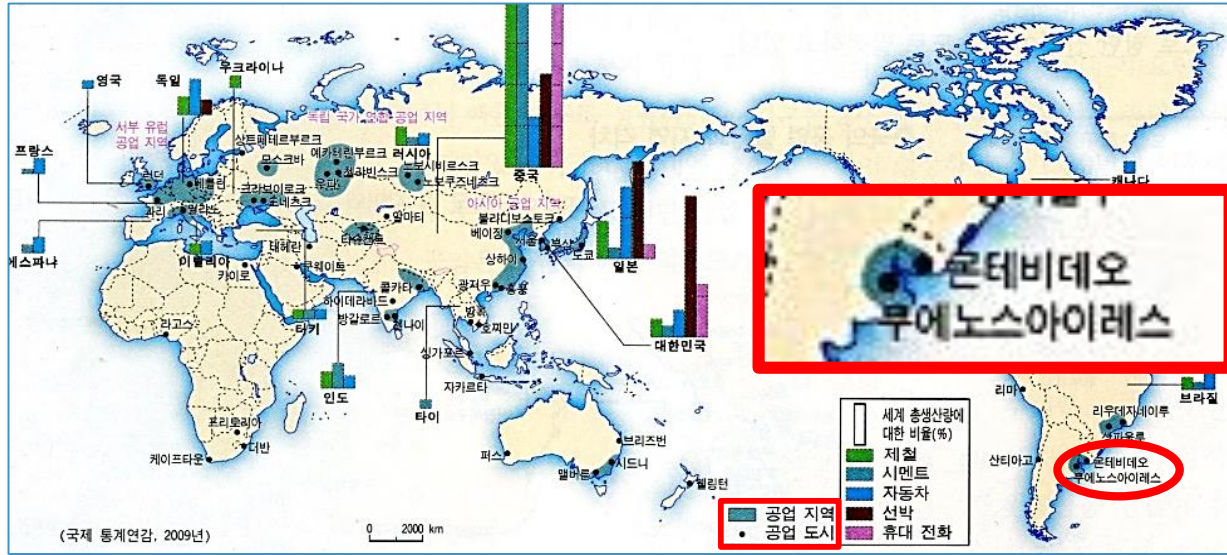
- ✓ 백인이 90% 이상을 차지

■ **인구**

- ✓ 인구이동: 이주를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
- ✓ 합계출산율: 2~3명
- ✓ 인구 증가율: 정체 혹은 둔화 단계, 60세 이상 인구비율 증가



■ 공업지역



| 자료 2 | 비스타(VISTA)의 등장

국가	인구(백만 명)		면적 (만 km)	국내 총생산 (억 달러)	국제 무역액 (억 달러)	
	2009년	2050년			수출	수입
베트남	88	112	33.1	972	558	657
인도네시아	230	288	190.4	5,403	1,190	919
남아프리카 공화국	50	57	121.9	2,860	626	732
터키	75	97	78.3	6,156	1,022	1,407
아르헨티나	40	51	278.0	3,087	561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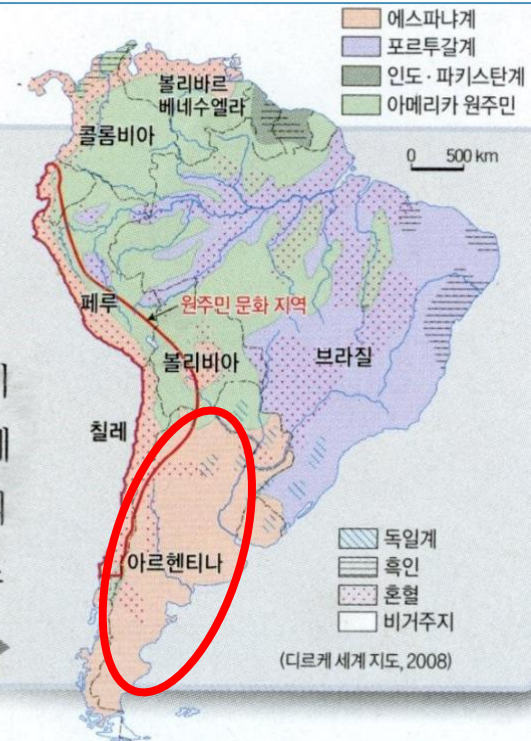
비스타(VISTA)는 신흥 공업국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터키(Turkey), 아르헨티나(Argentine)를 일컫는 말이다. 비스타에 속한 국가들은 인구가 약 2억 3,000만 명인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브릭스에 비해 국내 시장만으로는 충분히 성장하기 어려운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원유와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각각의 국가가 속한 지역에서 경제를 이끄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종

세계를 읽는 길잡이 남아메리카의 백인 거주 지역

남아메리카는 유럽 인의 진출로 아메리카 원주민, 백인, 흑인, 메스티소, 물라토 등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게 되었고, 흔히 인종의 도가니로 비유한다. 지금은 대부분 유럽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영원히 백인의 땅이 된 곳도 있는데, 바로 백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다. 이 나라들은 모두 인간 생활에 유리한 온대 기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백인은 주로 온대 기후 지역에 거주하고, 원주민 자치주는 대부분 건조한 지역에 위치한다.

남아메리카의 민족 분포 ▶



에스파냐계	독일계
포르투갈계	흑인
인도·파키스탄계	혼혈
아메리카 원주민	비거주지

인종

도입 활동 | 탐구 | 심화 이웃 나라인데 왜 인종이 다를까?



▲ 브라질의 국가 대표 선수



▲ 아르헨티나의 국가 대표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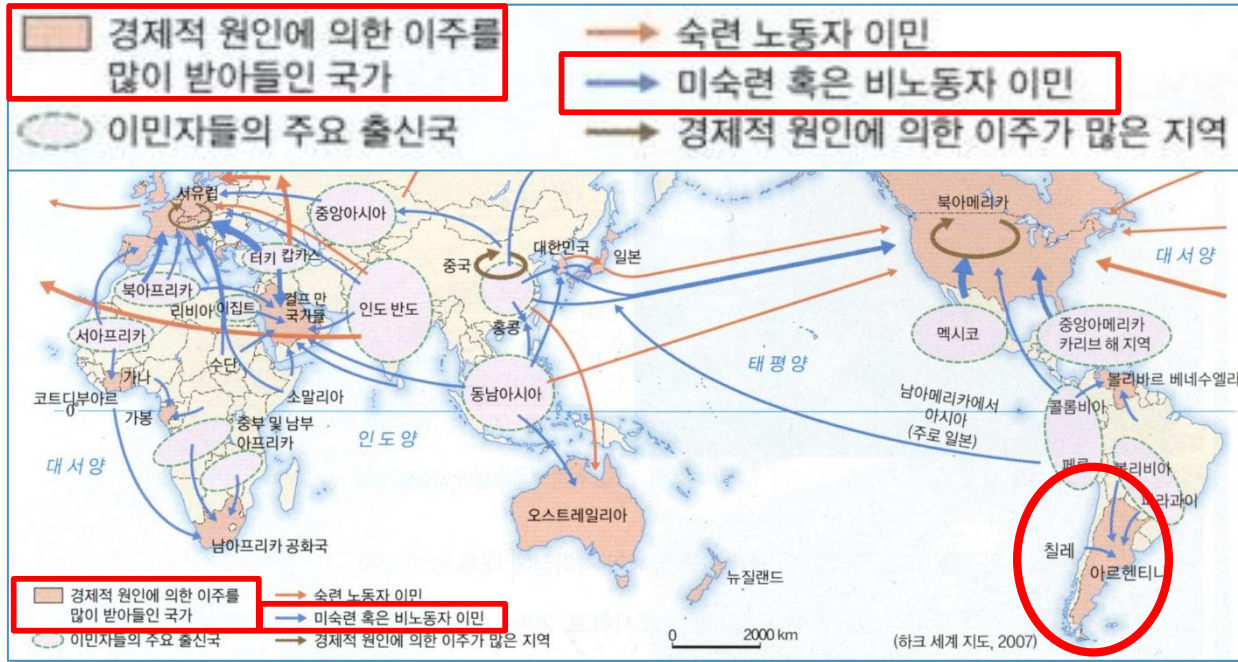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 참가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가 대표 선수들을 비교해 보면, 이웃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종 구성이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질의 국가 대표 선수는 백인, 흑인, 메스티소, 몰라토 등 다양한 인종이 한팀에 구성되어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는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두 국가의 인종 구성을 보더라도 브라질은 인종 구성이 다양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전체 인구의 86%가 백인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식민 통치 시대 때 두 국가에 이주했던 지배층의 인구 이동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온대 평야 지역으로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혼혈이 적었던 반면 브라질처럼 열대 밀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주로 백인 남성들 위주로 이주가 진행되어 혼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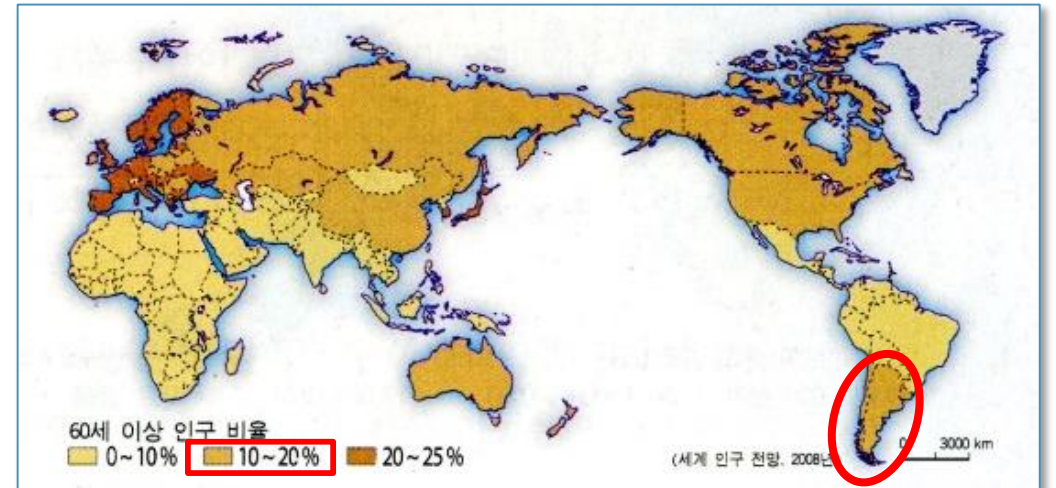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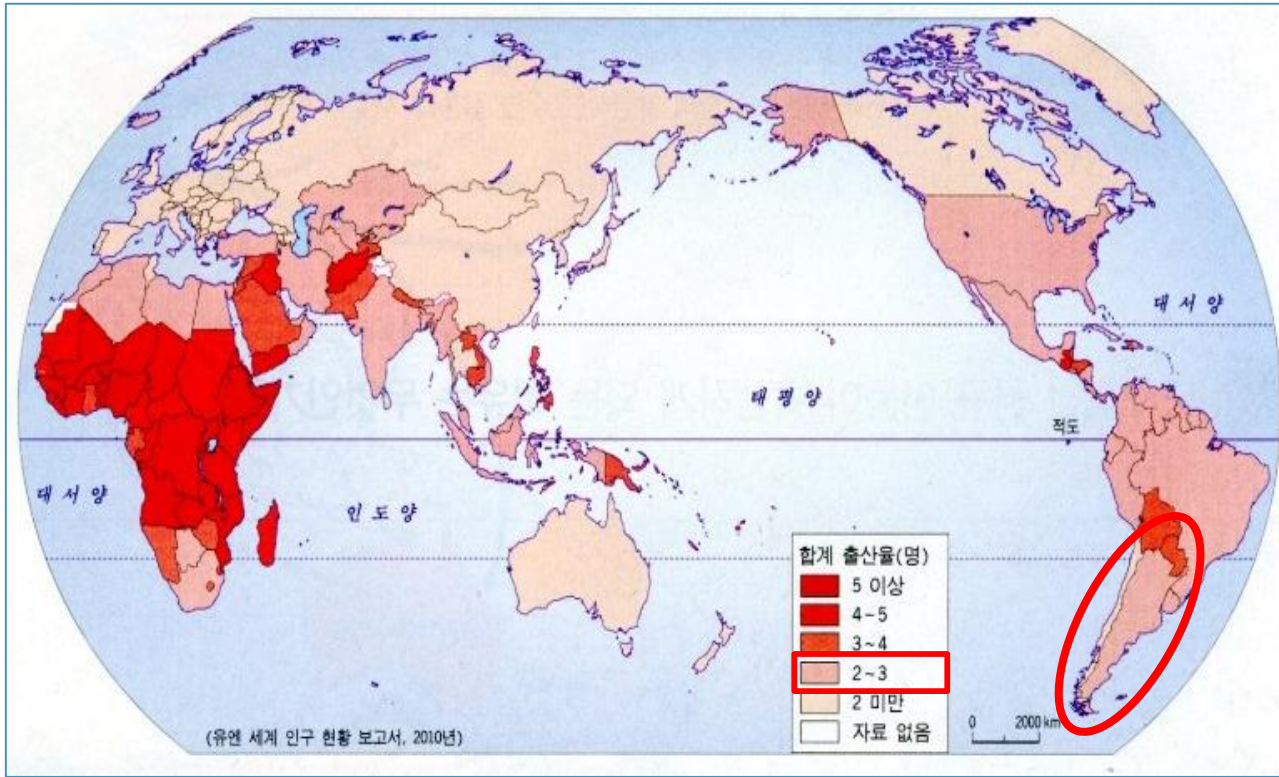


1. 같은 남아메리카에서 국가에 따라 인종의 구성이 달라지는 이유를 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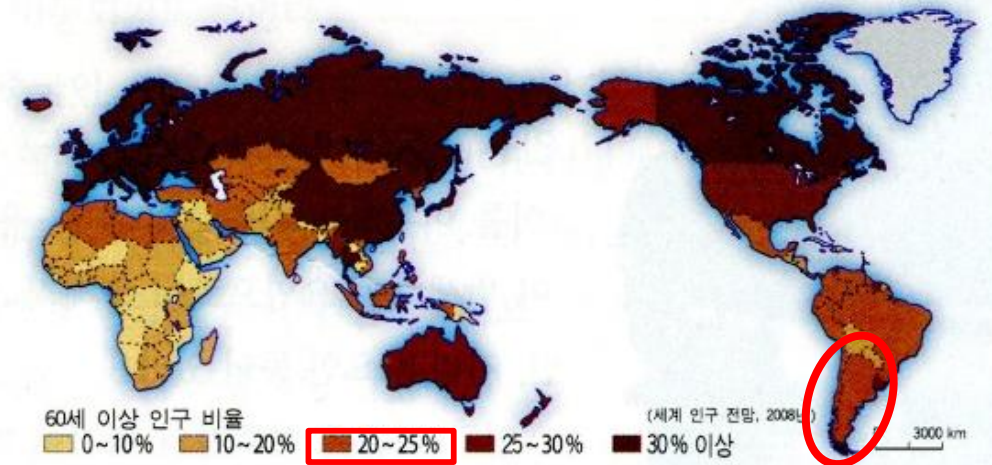
■ 인구(노동력 국제이동, 인구 성장 유형)



■ 인구(합계 출산율, 노령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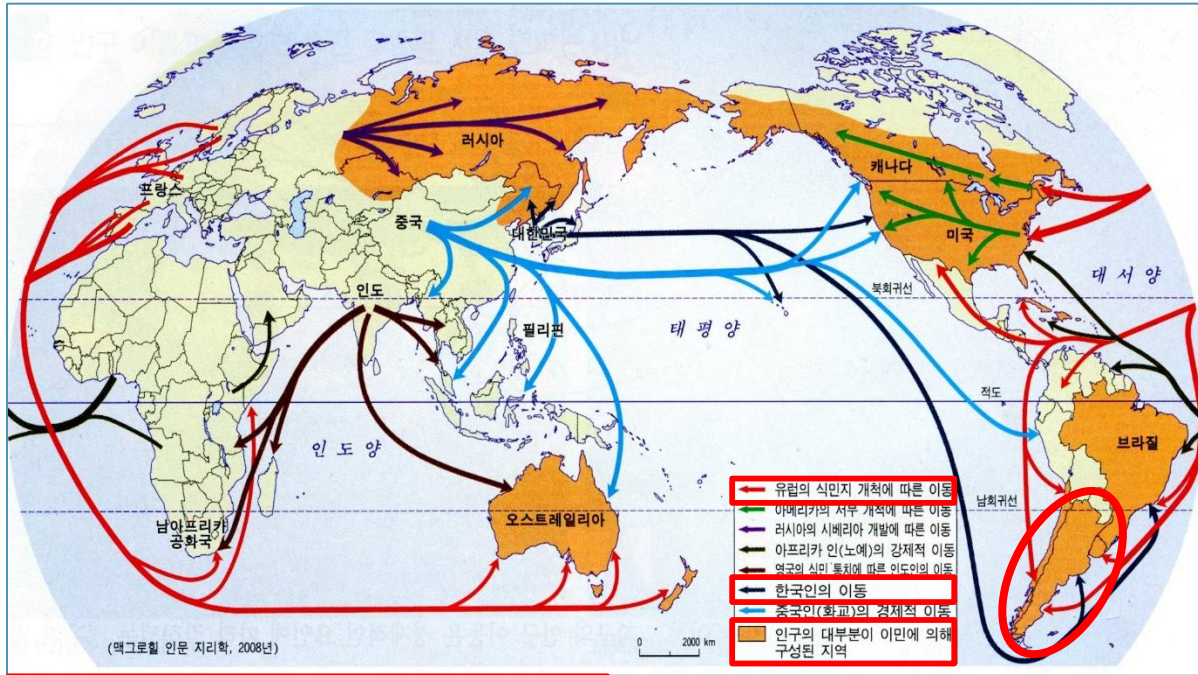


▣ 2005년의 노령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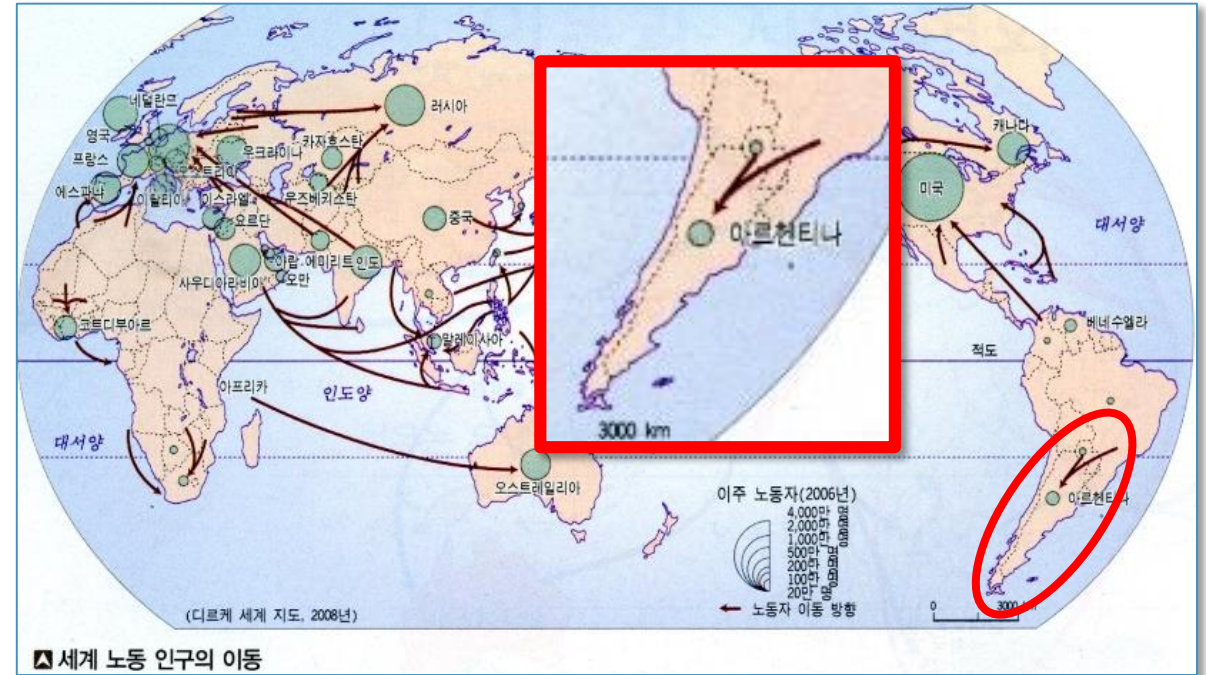


▣ 2050년의 노령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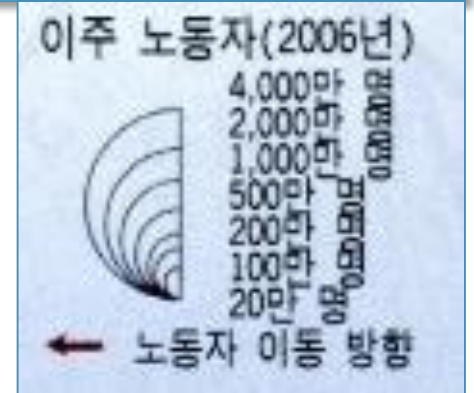
인구(인구 이동)



- 유럽의 식민지 개척에 따른 이동
- 아메리카의 서부 개척에 따른 이동
-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에 따른 이동
- 아프리카 인(노예)의 강제적 이동
- 영국의 식민 통치에 따른 인도인의 이동
- 한국인의 이동
- 중국인(화교)의 경제적 이동
- 인구의 대부분이 이민에 의해 구성된 지역



세계 노동 인구의 이동



고등학교 세계지리

■ 세계 경제 단체

- ✓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UNASUR)

■ 서비스산업, 인터넷

- ✓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30~60%
- ✓ 인터넷 사용률: 10~50%

■ 환경문제

- ✓ 라니냐로 인한 심각한 가뭄

■ 도시화

- ✓ 80% 이상

■ 무역

- ✓ 아르헨티나의 수출액 1위: 식료품


■ 문화

- ✓ 혼합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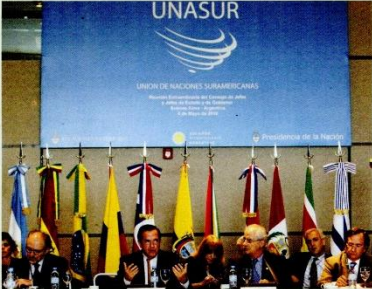
■ 세계 경제 단체

세계로 떠나는 여행길 탐사길



제2의 유럽 연합!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

여행한 곳 |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
공급한 점 | 제2의 유럽 연합을 꿈꾸는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남아메리카는 파나마를 기준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나누었을 때 남쪽의 대륙을 일컫는 말이다. 남아메리카의 자연환경은 세계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아마존 강, 세계에서 가장 긴 안데스 산맥,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앙헬 폭포 등을 비롯하여 화산, 사막, 빙하, 대평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고대 문명이 발달하여 독특한 원주민 문화가 남아 있으며,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과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의 문화가 혼합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가 지역별로 블록화되면서 남아메리카에도 안데스 공동 시장(ANACOM)과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같은 경제 블록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능이 경제적 협력에 한정되어 있고, 남아메리카가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남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은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경제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아 2004년 12월 8일 '남아메리카 국가 공동체'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08년 5월 23일에 제2의 유럽 연합을 표방한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UNASUR)'이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정상 회의에서 출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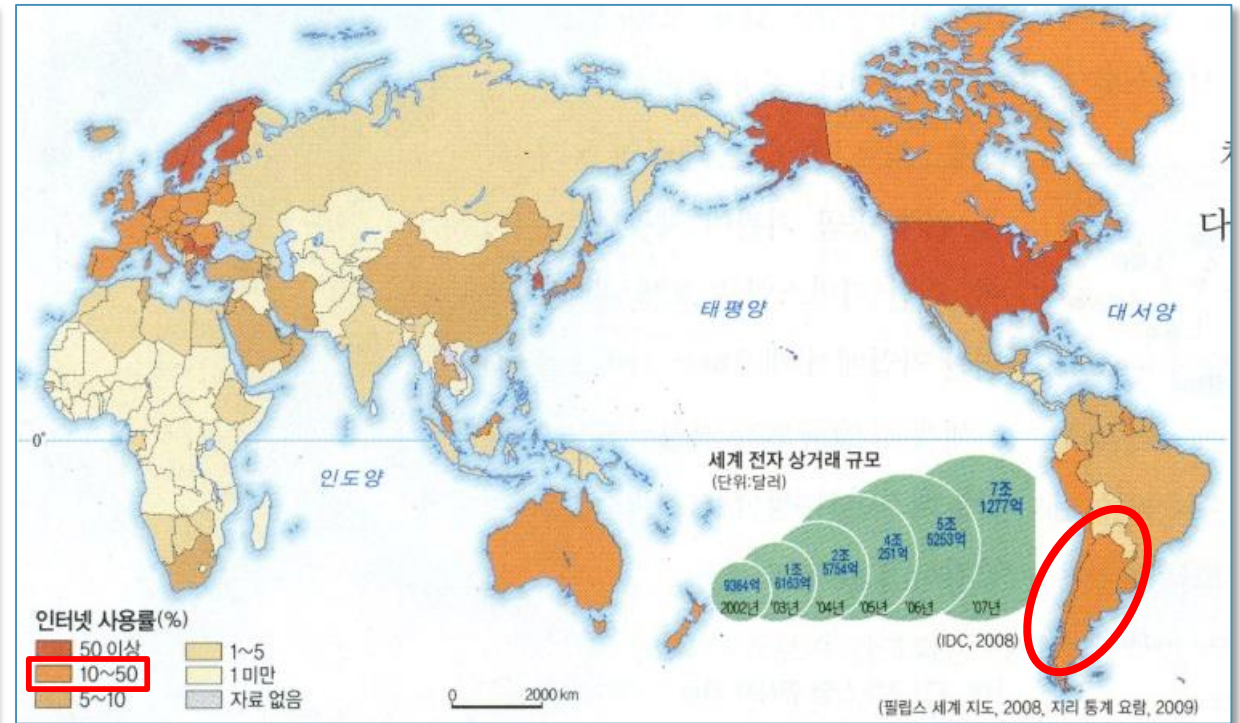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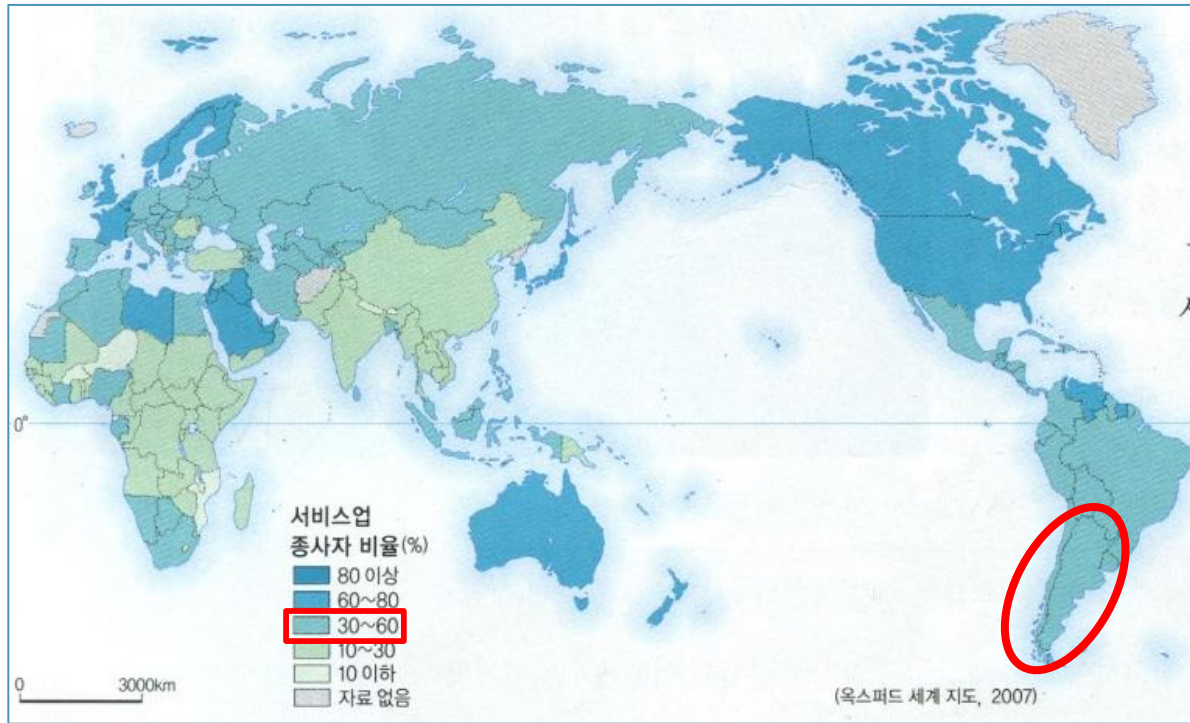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은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12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 연합과 마찬가지로 통합된 의회와 중앙은행, 지역 안보 기구 설립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인구는 약 3억 8400만 명, 국내 총생산은 약 2조 9100억 달러이다. 국내 총생산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이나 유럽 연합의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구가 유럽 연합보다 많고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국내 총생산이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날만큼 회원국 간의 경제력 차이가 크고, 정치적으로도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이 있어 이를 성공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국가	면적(km ²)	인구(백만 명)		도시화율(%)	1인당 국민소득(달러)
		2008년	2025년		
가이아나	214,969	0.7	0.7	36	4,230
베네수엘라	912,046	27.9	35.2	88	6,440
볼리비아	1,098,575	9.5	12.1	63	2,740
브라질	8,547,360	192.4	228.9	83	8,230
수리남	163,270	0.5	0.5	74	4,745
아르헨티나	2,780,388	39.8	46.4	90	13,920
에콰도르	283,560	13.9	17.5	61	4,070
우루과이	177,409	3.3	3.5	93	9,810
칠레	756,626	16.8	19.1	87	11,470
콜롬비아	1,138,906	48.2	58.3	77	7,420
파라과이	406,747	6.5	8.6	57	4,970
페루	1,285,214	29.1	34.1	74	5,830
합계	17,855,070	389.0	465.2	80	8,210

(통계청 자료, 2010년)

국가	면적(km ²)	인구(백만 명)		도시화율(%)	1인당 국민소득(달러)
		2008년	2025년		
가이아나	214,969	0.7	0.7	36	4,230
베네수엘라	912,046	27.9	35.2	88	6,440
볼리비아	1,098,575	9.5	12.1	63	2,740
브라질	8,547,360	192.4	228.9	83	8,230
수리남	163,270	0.5	0.5	74	4,745
아르헨티나	2,780,388	39.8	46.4	90	13,920
에콰도르	283,560	13.9	17.5	61	4,070
우루과이	177,409	3.3	3.5	93	9,810
칠레	756,626	16.8	19.1	87	11,470
콜롬비아	1,138,906	48.2	58.3	77	7,420
파라과이	406,747	6.5	8.6	57	4,970
페루	1,285,214	29.1	34.1	74	5,830
합계	17,855,070	389.0	465.2	80	8,210

■ 서비스 산업, 인터넷



■ 환경문제

☞남아메리카의 극심한 가뭄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브라질 남부 지역과 우루과이 등은 2009년 심각한 가뭄을 겪었다. 특히, 2009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008년의 30~60% 수준에 머물렀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다음가는 옥수수 수출국으로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지역에서 2009년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의 원인은 라니냐에 의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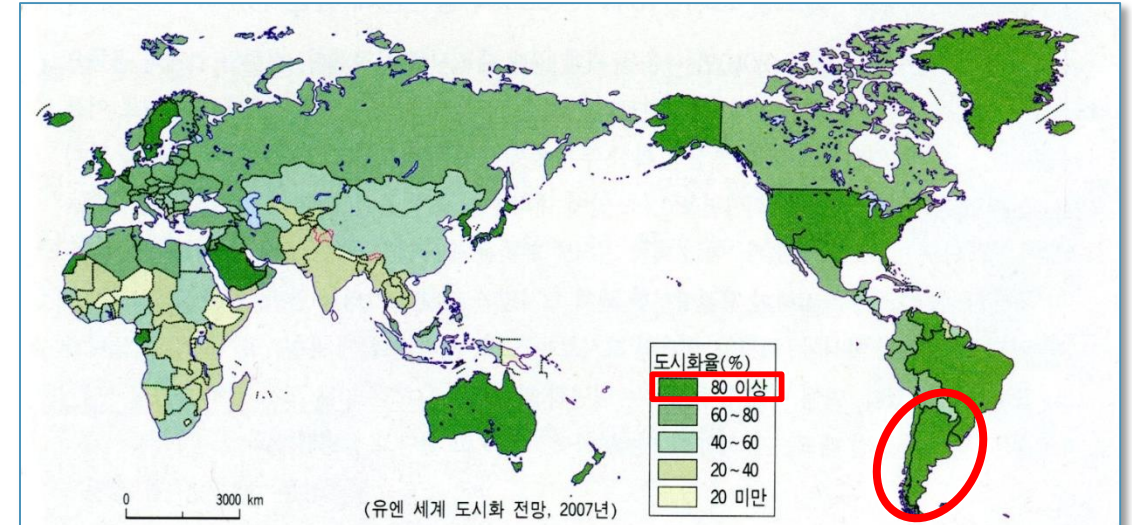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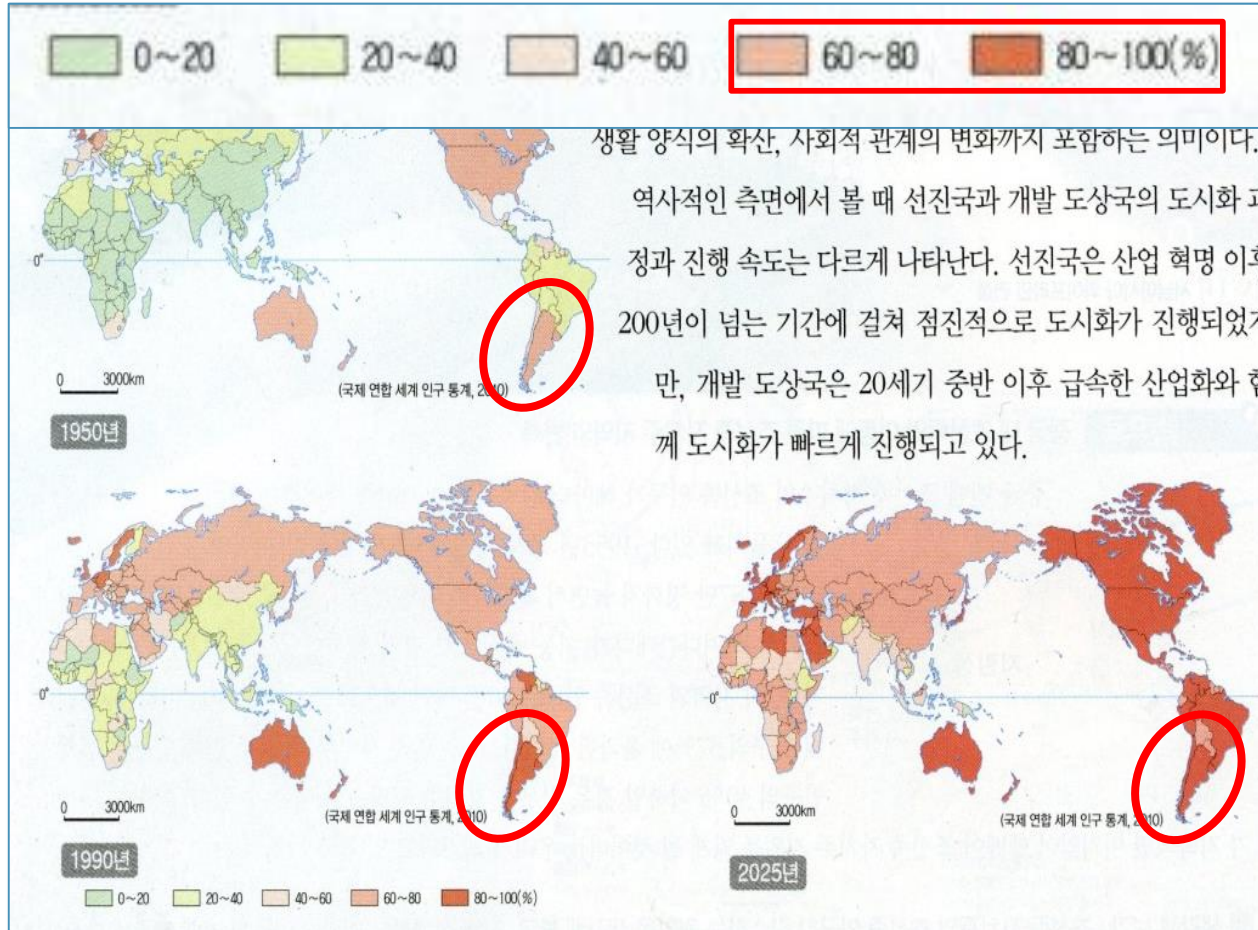


▲ 가뭄이 발생하지 않은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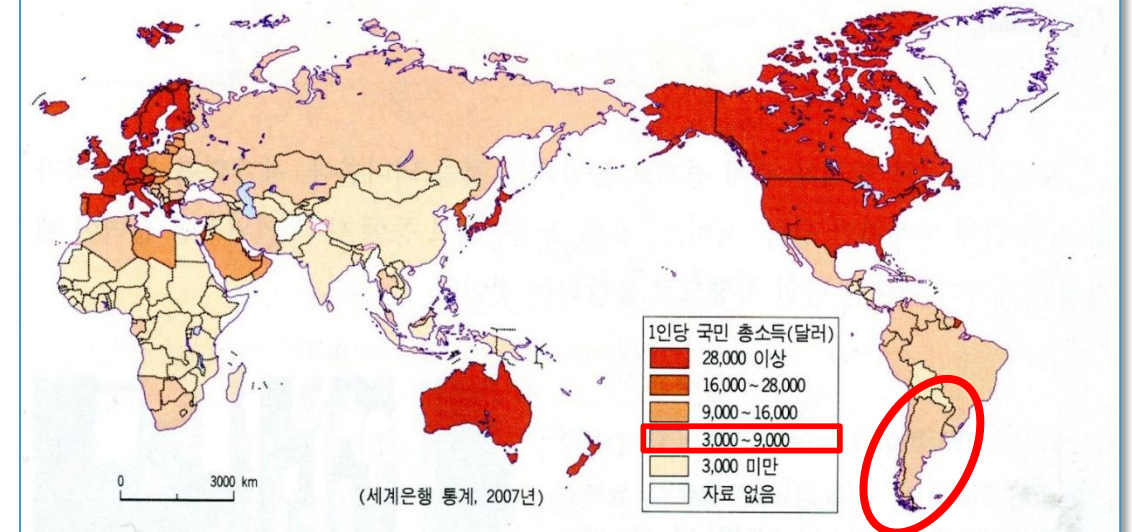


▲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2009년

■ 도시화(도시화율, 1인당 국민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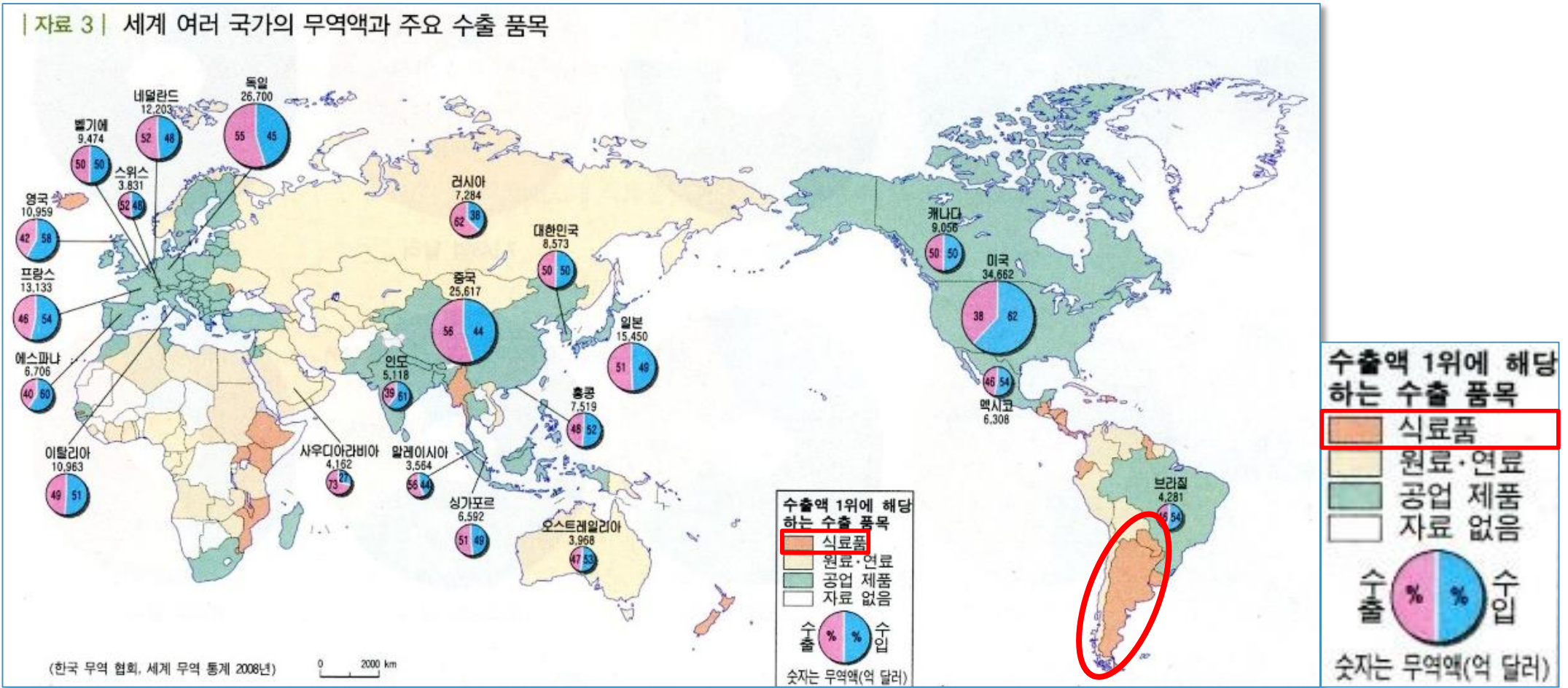


자료 3 | 세계의 1인당 국민 총소득



■ 무역(무역액과 주요 수출 품목)

| 자료 3 | 세계 여러 국가의 무역액과 주요 수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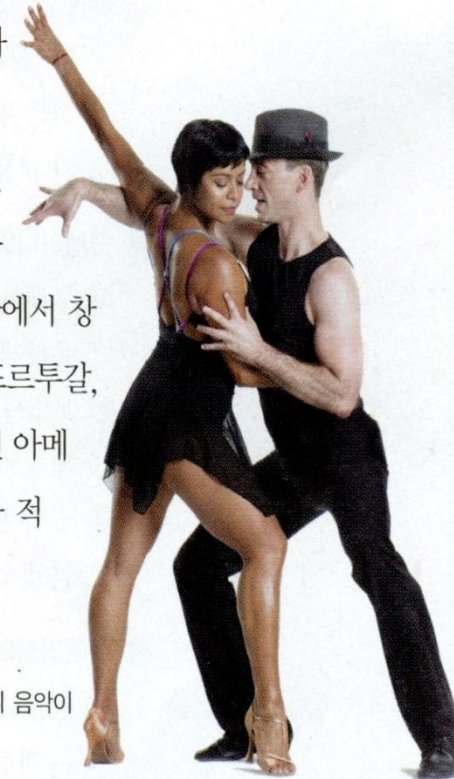
■ 문화(혼합 문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창조성

라틴 아메리카 다문화 사회의 특징은 하나의 문화가 또 다른 문화로 편입·수용·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어 새로운 모습의 문화를 창조한다는 점이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외형적으로 유럽 문화에 동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 문화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들 고유의 문화와 접합하여 새로운 매개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사례는 문학이나 예술 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탱고, 브라질의 삼바, 자메이카의 레게, 쿠바의 살사 등의 독특한 음악 장르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특한 역사·지리적 상황에서 창조된 대표적인 혼합 문화의 산물이다. 기본 장르인 흑인 노예의 음악과 율동에 포르투갈, 에스파냐, 미국의 음악이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 장르가 발달하였다. 이처럼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인종 집단은 주변부에 거주하는 수동적인 문화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문화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II-52] 삼바 축제 브라질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 혼합 문화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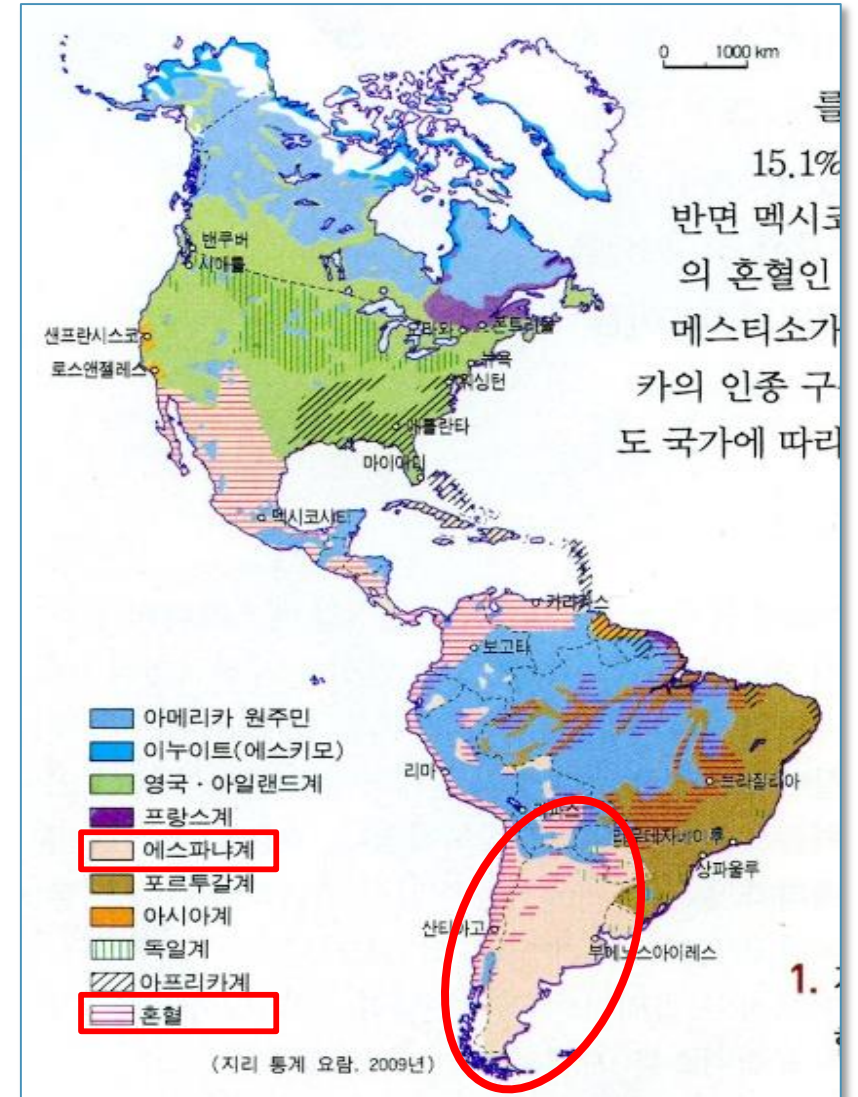
[II-53] 탱고 에스파냐의 춤곡과 아프리카계 이민족의 음악이 혼합되어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음악과 춤이다.

■ 문화(혼합 문화)

문화 혼합의 전통 | 인종과 민족의 이주와 함께 다양한 언어와 종교도 신대륙으로 전파되었다. 앵글로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종파로 나뉜 개신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퀘벡 지역에서는 여전히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에스파냐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가톨릭을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와 종교는 새로운 곳에 뿌리내리면서 변형되고 혼합되었는데,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러한 섞임 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예술 분야에서도 섞임 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음악 장르들도 특유의 섞임 현상이 만들어낸 문화이다.** 탱고(아르헨티나), 삼바(브라질), 레게(자메이카), 살사(쿠바) 등 독특한 리듬의 음악과 춤은 각 지역에서 만나게 된 서로 다른 문화의 절묘한 혼합물이다. 미술과 영화, 문학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들이 탄생하였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혼합되었던 전통과 관계가 있다. 문화가 섞이는 것은 순수성을 잃어가는 열등한 과정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본질이 출현하게 되는 재탄생의 과정이다.



고등학교 사회

■ 기후

- ✓ 연평균 기온: 10~20°C, 연 강수량: 100~1,000mm, 연교차: 10~20°C
- ✓ 온대기후, 건조기후(사막기후) 혼합
- ✓ 목축업

■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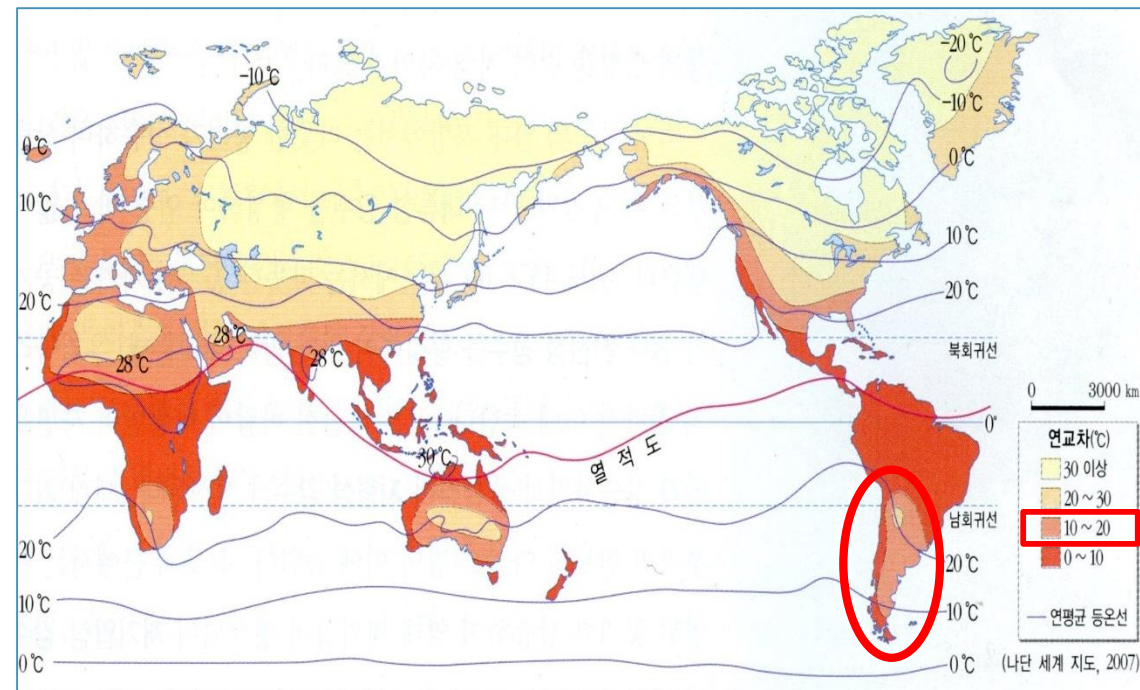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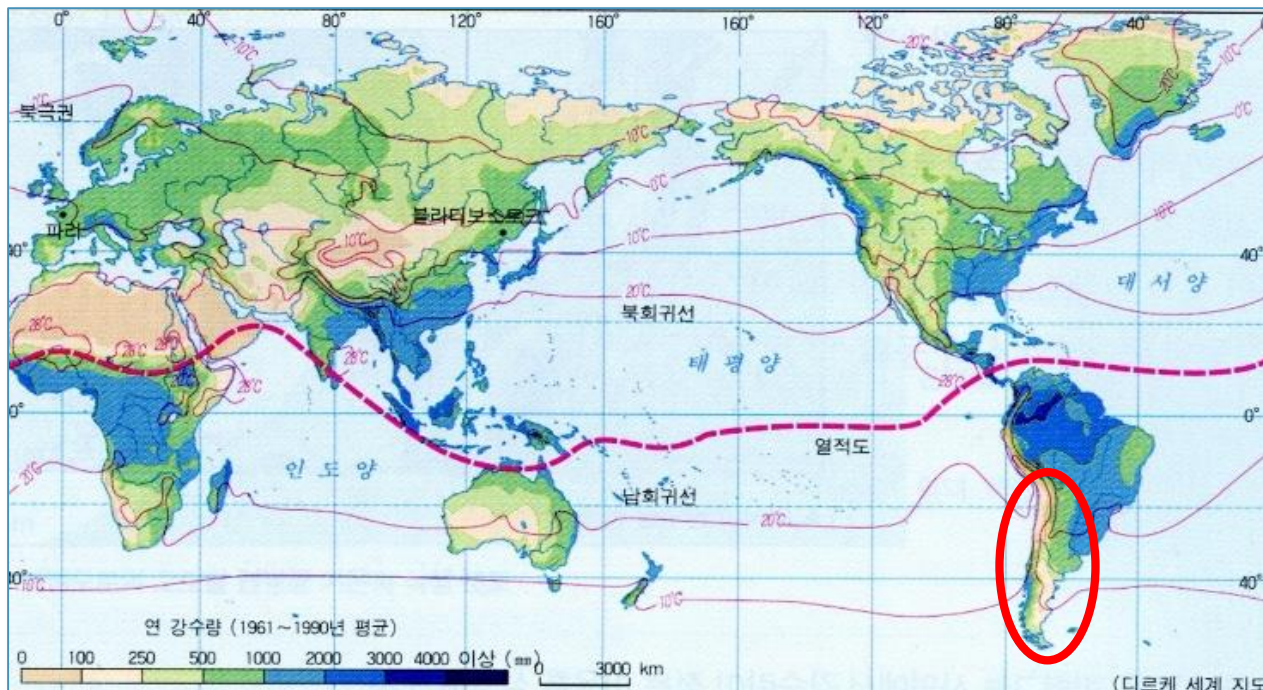
- ✓ 주요 도시 관광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생태 관광지: 이과수 폭포
- ✓ 부에노스아이레스: 전 세계 관광객의 82%의 출발지 및 도착지

■ 세계의 새로운 경제 체제

- ✓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 ✓ 세계 무역기구(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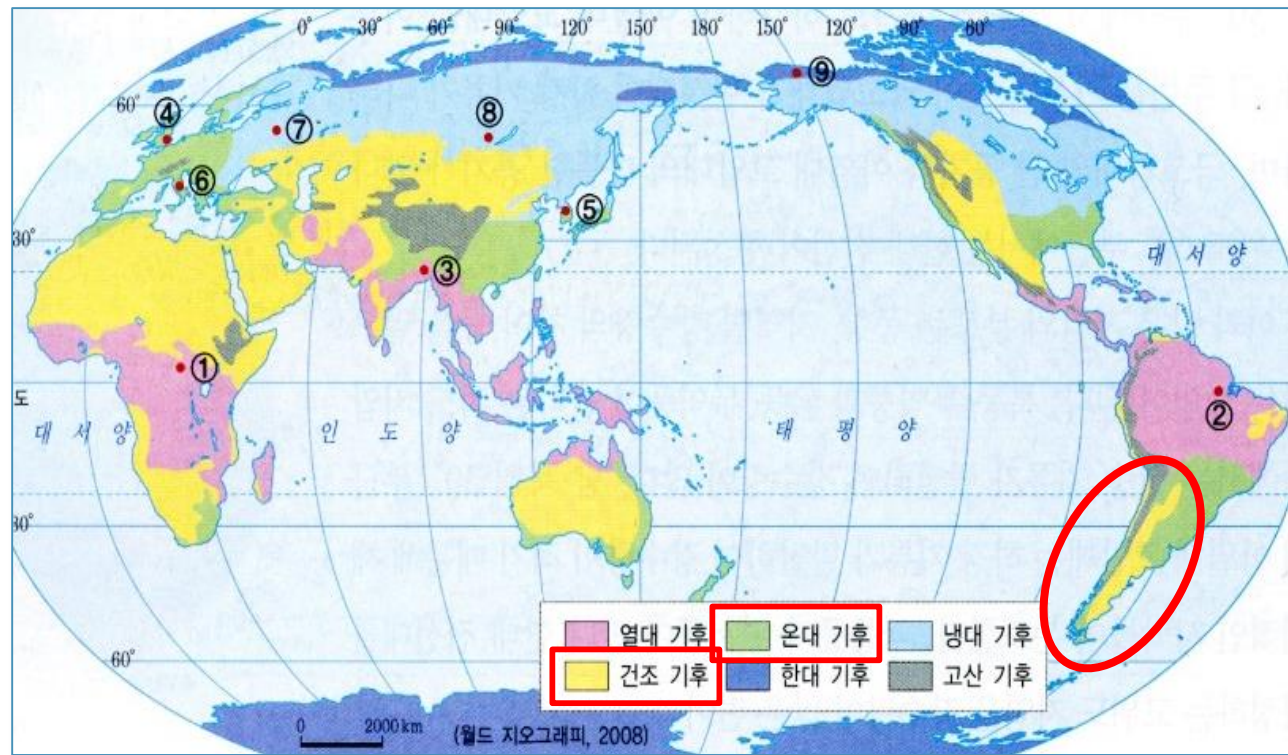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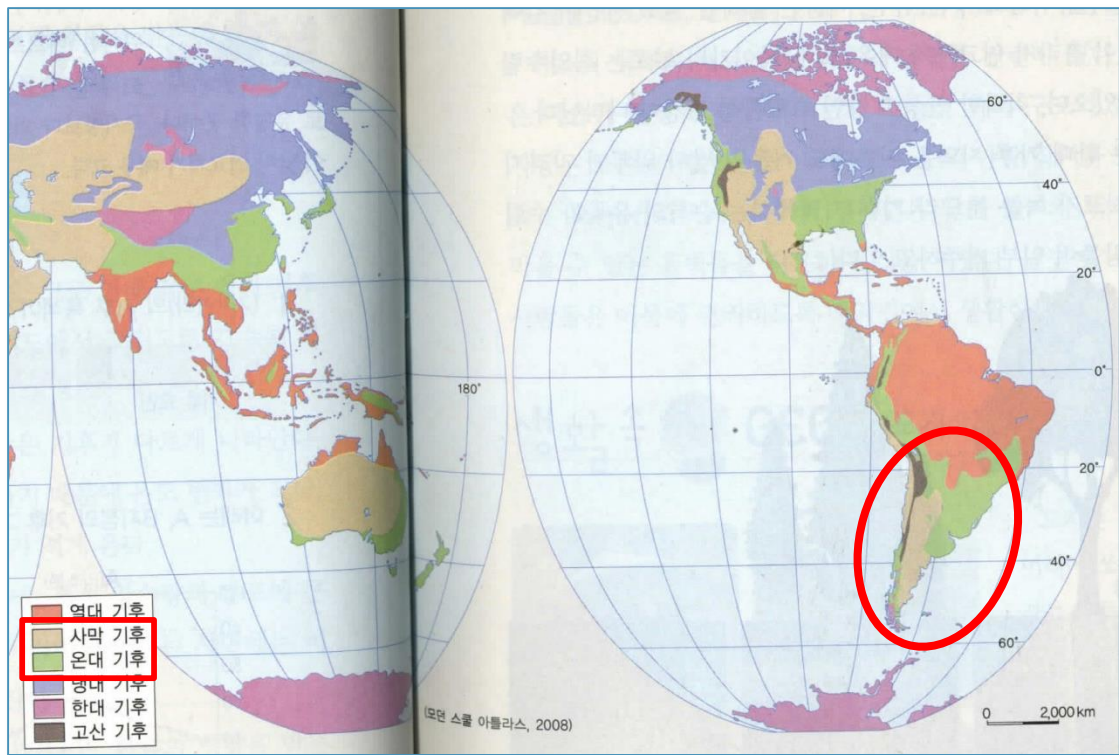


■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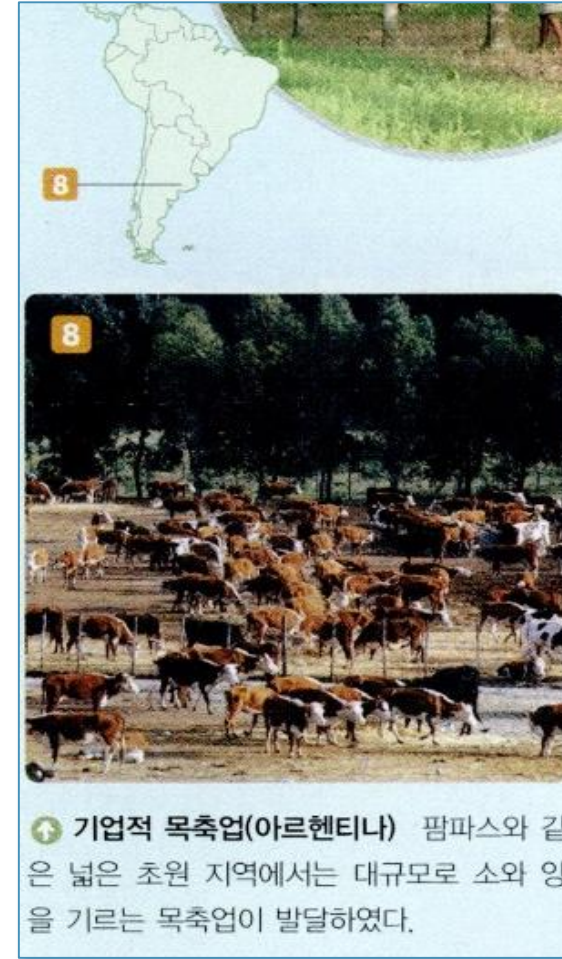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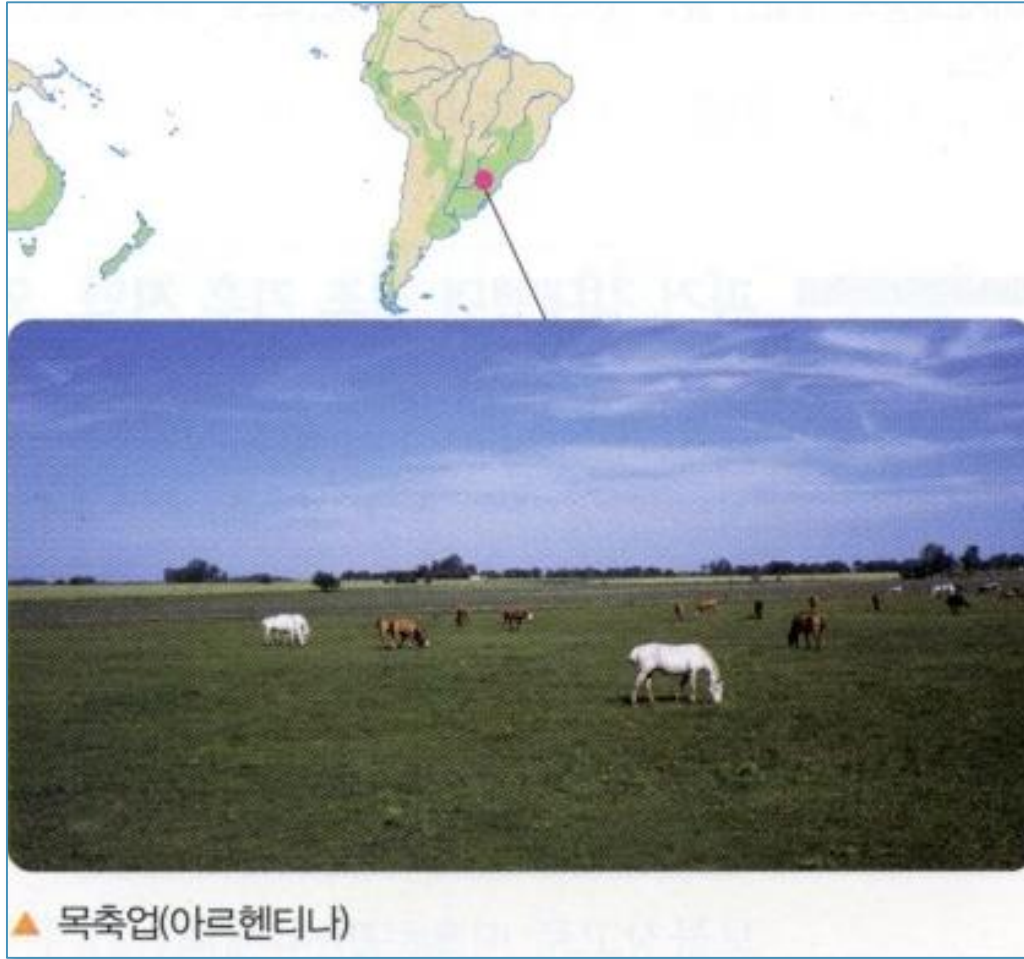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의 연평균 기온은 10~20°C 이며, 연 강수량은 100~1,000mm, 연교차는 10~20°C 이다.

■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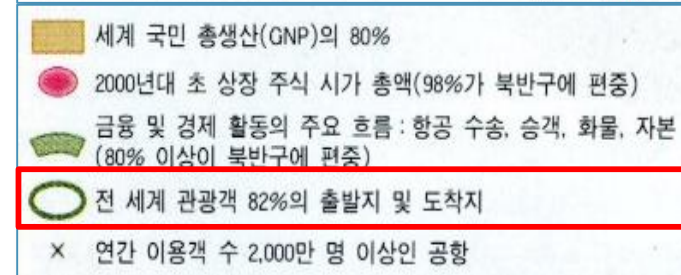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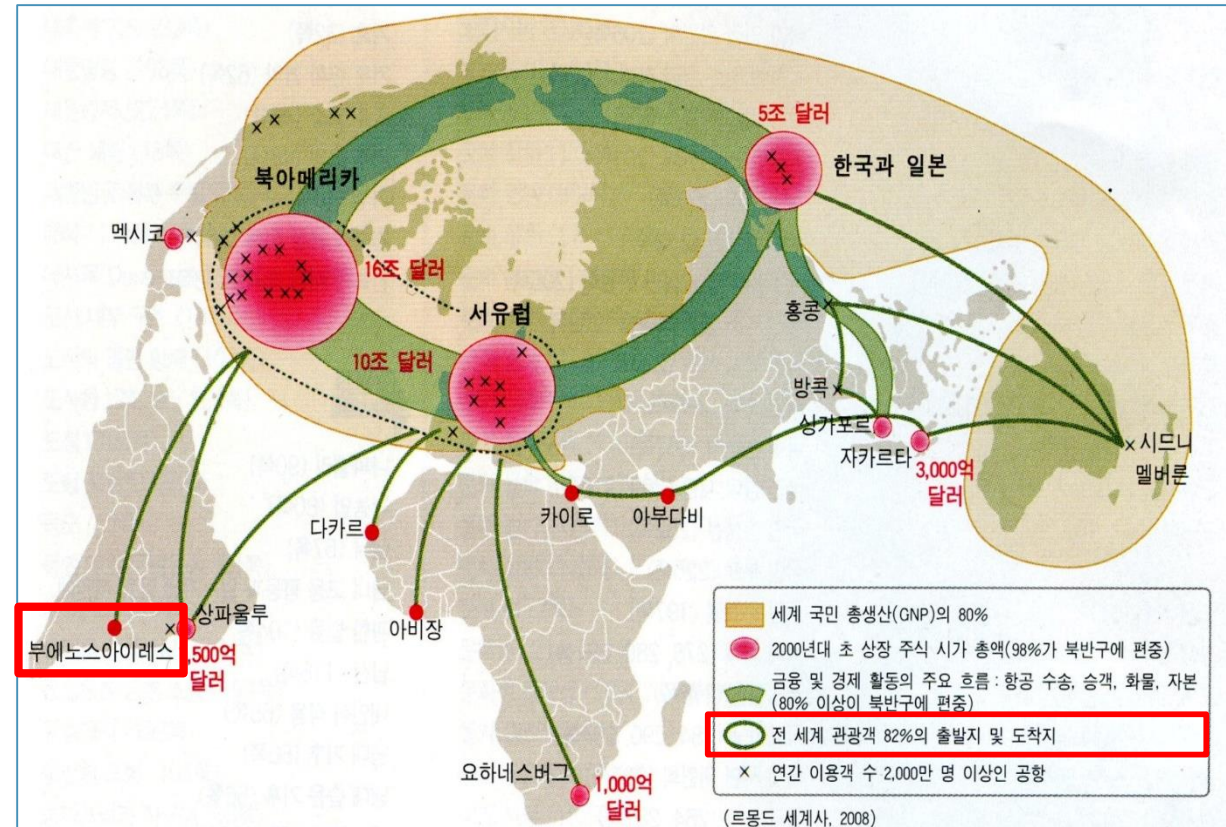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의 기후는 온대기후, 건조기후(사막기후)가 혼합되어 있다.

■ 기후



! 아르헨티나는 온대기후로 인해,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 관광



■ 세계의 새로운 경제 체제



! 아르헨티나는

세계 무역 기구(WTO), 남미 공동 시장(MERCOSUR)의 회원국이다.

고등학교 사회

■ 종교

- ✓ 크리스트교

■ 사막화

- ✓ 사막화의 확산

■ 도시화

- ✓ 75% 이상
- ✓ 격자형 또는 방사형의 도로망
- ✓ 2005년 인구 10위 도시-12,533,000명, 2025년에는 순위권 밖

■ 산업

- ✓ 첨단 산업 시장에서 급부상, IT업계 진출

■ 문화

-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럽풍 시가지
- ✓ 혼합문화-탱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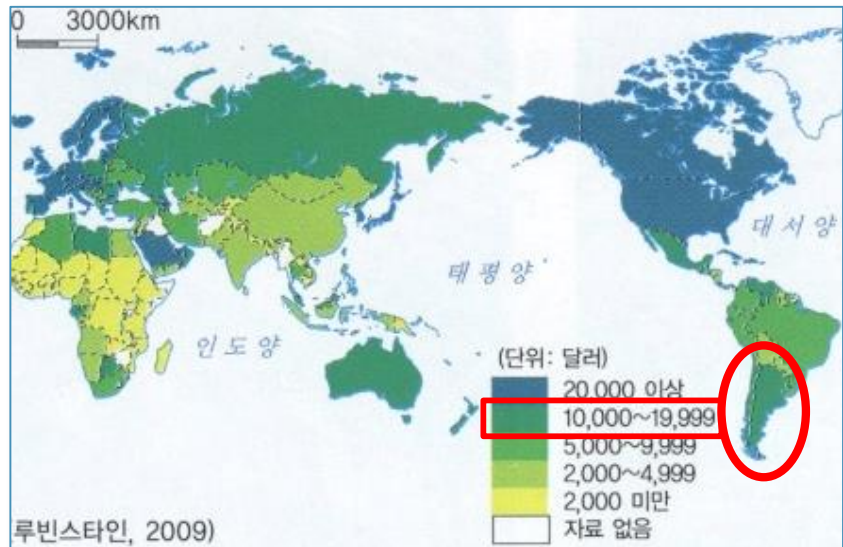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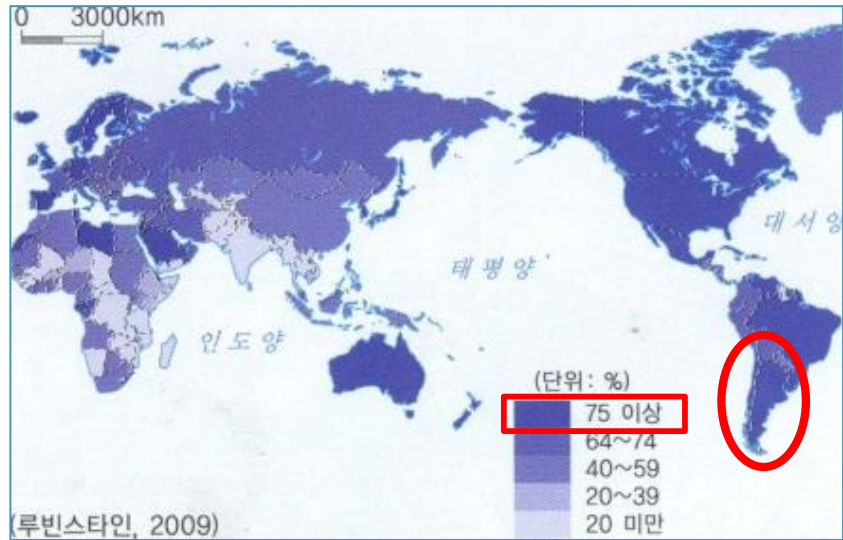
■ 종교



■ 사막화



■ 도시화(도시화를, 1인당 국내총생산, 10대도시 전망, 도시경관)



순 위	2005년		2025년	
	도시	인구	도시	인구
1	도쿄(일본)	36,327	도쿄(일본)	36,400
2	멕시코시티(멕시코)	18,735	뭄바이(인도)	26,385
3	뉴욕(미국)	18,732	델리(인도)	22,498
4	상파울루(브라질)	18,333	다카(방글라데시)	22,015
5	뭄바이(인도)	18,202	상파울루(브라질)	21,418
6	델리(인도)	15,053	멕시코시티(멕시코)	21,009
7	상하이(중국)	14,503	뉴욕(미국)	20,628
8	콜카타(인도)	14,282	콜카타(인도)	20,560
9	다카(방글라데시)	12,576	상하이(중국)	19,412
10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12,553	카라치(파키스탄)	19,095

개발도상국의 도시 경관

오랫동안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도시 경관이 이중적으로 형성된 곳이 많다. 즉, 식민지 시대의 도시 경관과 독립 이후에 형성된 도시 경관이다.

개발도상국의 주요 도시는 식민지 시대에 유럽의 도시 계획 방식에 따라 형성되었다. 그래서 도심에 위치한 광장이나 대성당 등을 중심으로 격자형이나 방사형의 도로망이 질서 정연하게 뻗어 있으며, 이를 따라 유럽풍의 건물이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라틴 아메리카의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경관 특징이 잘 나타난다.



유럽풍

■ 산업(첨단 산업 시장에서 급부상, IT업계 진출)

시사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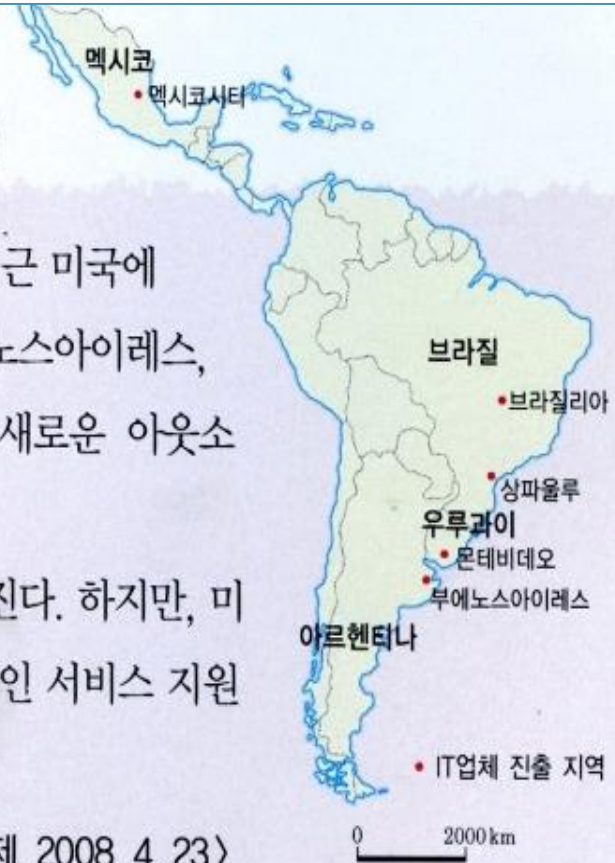
첨단 산업 시장에서 급부상 중인 라틴 아메리카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T ^{*}아웃소싱하면 단연 인도를 떠올렸으나, 최근 미국에서는 인도 대신 라틴 아메리카를 주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들이 미국 IT 업계의 새로운 아웃소싱 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은 여전히 인도보다 임금 수준이 높고, 업무 숙련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시간대가 비슷하며 이동 시간이 짧아 즉각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기 쉽고, 직접적인 직원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경제, 2008. 4. 23〉

*아웃소싱 기업 업무의 일부를 경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 IT 업체 진출 국가

■ 문화(혼합문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럽풍 시가지

(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탱고는 이주민 문화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춤이다. 1880년대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든 이주 근로자들의 향수와 신분 차별에 대한 불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정서가 함축된 이 춤은 아프리카, 쿠바 등 여러 나라의 전통 춤이 섞여 만들어졌다. 유럽 하층 이민자들의 문화였던 탱고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 대중화되었고, 이제는 대중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가) (나) (다)의 글이 보여 주는 문화 변동의 양

3. 요약 및 결론

■ 역사부도

- ✓ 스페인 식민지
- ✓ 1816년 아르헨티나의 독립 - 산 마르틴
- ✓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회원국
- ✓ 크리스티교 국가

■ 세계사

- ✓ 스페인 식민지
- ✓ 1816년 아르헨티나의 독립 - 산 마르틴(Jose de San Martin)
- ✓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회원국
- ✓ 인종 - 90% 이상 백인, 나머지 메스티소

3. 요약 및 결론

■ 세계지리

- ✓ 스페인어 사용(로망스어족)
- ✓ 가톨릭교 국가
- ✓ 연교차 10~30°C
- ✓ 온대기후, 냉대 및 한대기후 혼합
- ✓ 사막, 방목지, 경작지, 산림지 혼합
- ✓ 기업적 방목, 기업적 곡물 농업, 혼합 농업이 분포
- ✓ 10억 달러 이상 곡물의 순 수출국
- ✓ 인종 – 백인이 90% 이상
- ✓ 도시화 – 80% 이상
- ✓ 문화 – 혼합 문화
- ✓ 무역 – 수출액 1위, 식료품
- ✓ 인구이동 – 이주를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
- ✓ 비스타(VISTA) 국가

3. 요약 및 결론

■ 사회

- ✓ 연평균 기온 10~20°C, 연 강수량 100~1,000mm, 연교차 10~20°C
- ✓ 온대기후, 건조기후(사막기후) 혼합 – 목축업이 발달
- ✓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세계 무역 기구(WTO) 회원국
- ✓ 크리스티교 국가
- ✓ 사막화 확산 – 파타고니아 사막
- ✓ 도시화 – 75% 이상
- ✓ IT업계 진출
- ✓ 문화 – 혼합 문화(탱고), 유럽풍 시가지

**아르헨티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 넓은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관련 내용이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소개되기를 희망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mail: diani84@aks.ac.kr

✓ TEL: 82)31- 709- 6573

